

청년생활

1964. 2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리 종록 작

여기에 한 당원의 당증이 있다.

그것은 당에 대한 충성을 붉은 피로 아로새긴 한 전사의 당증이다.

당과 수령의 부름 따라 죽음도 두려움 없이 싸워 이긴 전사.

그대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기록은 여기에 없다. 그러나 그대는 여기에 써 놓았다. 붉은 피로써, 혁명 전사인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결의를.

우리는 알고 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던 그 시각까지 그대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지금도 식지 않은듯 당증을 붉게 물들인 후더운 피는 우리의 가슴 속에 콸콸 흘러들고… 적진으로 육박하면서 그대가 웨친 만세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쥐여 흔든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어데 있으며 이보다 더 굳센 청춘 또한 그 어데 있으랴.

전사여, 그 어느 때고 당이 부른다면 우리 또한 그대처럼 용감하리라!

이 땅에 한 포기 꽃으로 진다고 하여도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워 가리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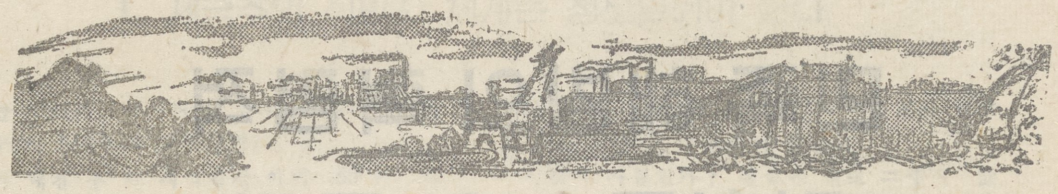
(178)



1964. 2



차 례



표지 1 면; 폭우를 뚫고 김 육룡

민족 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자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의 폭풍이 이 대륙들을 휩쓸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수억만 인민들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저주로운 제국주의의 숨통이 여기서 끊어져 가고 있다.

력사는 일찌기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이처럼 광범한 지역과 인민들을 포괄한 혁명 운동을 보지 못 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은 세계 혁명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으며 그 승리를 앞당기고 있다.

현실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대두한 수정주의는 현 시기 세계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수다한 출판물들과 연설들을 통하여, 국제 민주 단체들의 회의들과 기타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중상 비방하며 제국주의 앞에서의 투항과 타협을 설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투쟁하지 못 하게 하며 제국주의를 각방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리성》에 기대를 걸고 평화적 공존과 군비 철페 등의 실현을 통하여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세계 대전의 참화를 가져 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족 해방 운동을 가리켜 《송장을 위한 운동》이라고 모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부르조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그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피압박 인민들이 자체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들의 영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진보적 력량들과 굳게 단결하여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라고 인정한다.

1,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청산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2 차 대전 후 이 지역에서 이미 50 여 개 나라들이 독립을 달성하였다.

조선, 중국, 월남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큐바 인민은 미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다.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재 생활을 개척하고 있다.

과거에 오로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민족 국가들이 형성 발전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력사적 사변이다.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어제'날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누르고 략탈하던 시기는 지나 갔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민족 해방 운동의 타격에 의한 식민지 노예 제도의 붕괴는 그 력사적 의의로 보아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에 다음 가는 현상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1>

그러나 식민주의 제도는 아직 완전히 청산된 것이 아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의연히 류혈적 폭압과 강도적 략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사람들은 식민주의 제도가 이미 붕괴되고 그 잔재만이 얼마간 남아 있으며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거의 완수된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는 피압박 민족들이 식민지 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다만 5천만 정도의 사람들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략탈을 받고 있는듯이 말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세계에서 수억만 인민들이 의연히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억압과 략탈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된 오늘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를 통치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 그들은 낡은 수법과 함께 교활하고 은페된 신 식민주의의 수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식민주의 제도를 보존하고 있다. 현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지 않는 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나라들을 각이한 방법으로 의연히 예속 상태에 얽매여 두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련의 나라들에서 그 괴뢰들을 정권에 들여 앉히고 이들을 통하여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선포한 여러 나라들을 《련방》, 《공동체》 등과 같은 기구에 얽매여 두고 이 나라들을 과거의 종주국에 대한 예속 관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을 쎈토, 세아토와 같은 군사 쁠럭과 수 많은 쌍무적인 군사 동맹들에 끌어 들여 정치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오늘 미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31 개 나라에서 중요한 것만 하여도 95 개소의 군사 기지들을 포치하고 40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10여 개 나라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7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불란서는 이 지역 나라들에 20만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수 많은 군사 기지들과 주둔군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위축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 목적에 리용되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미끼로 그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이 지역 나라들에 자기의 침략적 의사를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평화군》, 《아프리카 십자로 계획》 등을 식민주의적 침투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 당하고 있으며 실제 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일본의 오끼나와 등 여러 지역들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가 광범한 지역에 의연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은 약소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2,0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독점 회사들의 자본이 국가 자본과 함께 침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투자는 2 차 대전 후 기간에 수배로 장성하였다.

미국은 이 지역 나라들에 1962년 말 현재로 약 300억 딸라를 투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 수출과 각종 식민지적 리권에 의거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는 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 아연광의 3 분의 2, 석유 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토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독점 자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중요 광업 부문들을 거의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으며 중근동 석유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적 예속과 전횡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경제적으로 락후한 약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유로운 자본 수출과 경제적 통제는 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식민주의 제도가 거의 다 소멸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배가 식민지적 예속화의 뚜렷한 표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들은 제국주의 강도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략탈 당하고 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독점 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 끝 없이 흘러 들어 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얻는 리윤률은 본국에서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최근 년간의 리윤률은 미국에서 10~12 %, 영국에서 8~9 %였는데 독점 자본가들이 예속 국가들에서 얻는 리윤은 투자의 30~100 %,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강도적 략탈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 처지에 있는 나라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고서도 본국에서보다 몇 분의 1, 심지어는 몇 십 분의 1 밖에 안 되는 기아 로임마저 제 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리윤, 리자로서 긁어 가는 리득과 원료들을 싸게 사 가고 상품을 비싸게 팔아 얻는 리득만 하여도 매년 약 300억 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독점 자본가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서 한 시간 동안에 340만 딸라, 하루 동안에 근 1억 딸라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1 년 동안에 빼앗아 가는 이 금액으로는 5억 톤의 밀'가루를 살 수 있으며 이것으로 20억 인구가 1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긁어 가는 매 딸라, 매 파

운드, 매 프랑에는 고역과, 빈궁과, 기아에 쓰러진 인민들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서도 약소 국가 인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있다. 그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그것보다 2~3 배나 더 많은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35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고 약 100억 딸라의 재부를 략취하였다.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들씌운 엄청난 군사비 부담과 가혹한 착취는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미제가 특별히 힘을 들여 《지원》한다는 남조선 경제의 여지 없는 파산은 제국주의 《원조》의 략탈적 본질을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모든 전횡과 강도적 략탈은 식민주의 제도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야만적 식민지 통치의 악 결과로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계속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다.

유구한 문화와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근면한 인민들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장 락후한 지대로 남아 있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약 6,000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 하고 아무런 생활 원천도 없이 길'가에서 헤매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3 분의 2, 아프리카 주민의 대다수, 아세아의 수억만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해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혹심한 기아와 고역 때문에,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병 때문에 죽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는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20~30년이나 짧으며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30 세에도 달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유아 사망률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보다 3~4 배, 심지어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참으로 이 나라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대량 살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혹심한 문화적 락후성을 가져다 주었다. 20 세기의 중엽인 오늘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7,000만 사람들, 아프리카 주민의 80 %가 완전한 문맹자이다.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아동들의 취학률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3~4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죄행에서 온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피압박 민족들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피압박 민족들에게 들씌우고 있는 이 참화를 더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식민주의 제도를 하루라도 더 빨리 쓸어 버리며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식민주의 제도를 한 해라도 더 빨리 청산한다는 것은 수천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수억만 사람들을 빈궁과 기아에서 해방하며 수천만 아동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된다.

오늘 이미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거의 다 해방된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고통을 본 체 만 체 하는 것이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용서 못 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 지배와 략탈 정책을 온갖 방법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세상에 식민주의 제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특히 미제는 그들이 식민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후진 국가》 인민들의 《진보》를 위하여 힘 쓰고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선전이 아세아, 아

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간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어찌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에 맞장구를 치면서 더는 식민주의 제도가 남아 있지 않다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략탈을 폭로 규탄하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 바삐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민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멈출 수 없다.

피압박 인민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할 력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2,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스스로 물러 가지 않는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선심》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의 무진장한 원천이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세계 수억만 피압박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른 나라 령토를 침략하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을 또한 군사 전략 기지로, 대포'밥의 공급지로 리용하고 있다. 식민지는 바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서 스스로 물러 간 실례를 알지 못한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물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는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발악한다. 근로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으며 침략을 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달성하려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그 침략적 본성을 버리고 《리성적》으로 되였다고 말하면서 제국주의 두목들의 《현명성》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시대가 제국주의와의 전면적인 협조의 시대라고 하며 이 협조를 통하여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리성》을 발휘하여 식민지에서도 자진하여 물러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협상하고 타협하면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선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며 인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세력 범위>, 자본 수출을 단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마다 부자들에게 기독교의 위대성을 설교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매년 수십억 루블리는 못 되더라도 수백 루블리라도 베풀어 주라고 권고하는 승려의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레닌) <2>

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를 고창하는 사람들은 세계 혁명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평화적 공존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이 오늘의 핵 무기 시대에 혁명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피압박 민족들의 선차적 과업도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평화적 공존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에게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노예의 처지를 강요 당하고 있다. 억압하고 억압 당하는 량자 사이에서 무슨 평화적 공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럼에도 제국주의자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계속 감수하라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최근에 와서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 일이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명도 그들의 본심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은 평화적 공존의 환경에서만 민족 해방 혁명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평화적 공존이 보장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경쟁에서 제국주의가 패배할 것이며 따라서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떠든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평화적 공존에 복종하여야 하며 결국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평화적 공존을 광고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2 차 대전 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가렬한 투쟁의 결과에 이루어진 수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저들의 평화 공존 정책의 《덕분》으로 묘사하는 렴치 없는 일까지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제국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달성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대신하여 해방을 가져 올 수도 없다.

민족적 독립이 평화적 공존에 의하여 달성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남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 채려는 비렬한 행동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 흘려 싸운 수천 수만 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업적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되면 제국주의자들이 군대와 무장을 가지지 못 하게 될 것이므로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무장을 놓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 일관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2 차 대전 이후 18 년 간이나 렬강들 사이에 군비 철폐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여 왔으나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군비 철폐를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다. 《무장 없는 제국주의》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압박 민족들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 해방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면전에서 유엔을 우상화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을 통하여서도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유엔이 식민주의 제도의 청산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이것을 해내겠는가 하고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유엔은 만일 그것이 헌장에 규정된 임무에 충실하다면 일정하게 피압박 민족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유엔의 어떤 결정이 피압박 민족들의 독립에 대한 담보로 될 수는 없다.

더우기 오늘 유엔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침략의 도구로서 악용 당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을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약소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유엔의 간판을 도

용하여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수백만 조선 인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 밑에 콩고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그 수상 루뭄바를 학살하였으며 애국적 력량을 탄압하였다.

유엔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의 주권을 침해하고 침략의 마수를 큐바 령토내에 뻗치려고 하였다.

과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어떻게 유엔을 통하여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평화적 공존,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유엔 등을 통하여 식민주의 제도를 청산할 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민들을 사상적 면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반제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피압박 민족들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얽매여 두려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적극 미화분식하며 그 앞에서의 투항과 굴종을 설교하고 있다. 혁명적 인민들은 결코 이 길을 따를 수 없다. 력사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선심》에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실패의 쓰라림을 맛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피압박 민족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에 궐기할 때 비로소 해방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은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다. 미제는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국제 헌병이며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다.

오늘 미제는 멸망하여 가는 자기 운명으로부터의 출로를 타국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에서 찾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침략 책동과 파괴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 있으며 새로 독립한 민족 국가들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복종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여 온갖 진보적인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방해하며 탄압하고 있는 원흉도 바로 미제다.

미제는 많은 나라들을 사실 상 자기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가장 큰 식민지 소유국으로 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이 나라 자원을 마음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는 무력으로 타국 령토를 강점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주권을 엄중히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궐기한 인민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미제의 발'길이 미치는 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데가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며 세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미제는 날로 더욱 곤경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세계 제패를 꿈꾸며 인민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책동은 전 세계 인민들의 응당한 격분과 반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확대 강화하며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교활한 신 식민주의적 책동을 도처에서 폭로 배격하며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며 전면과 후면에서 그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 손발을 얽매여 놓아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군사 기지를 철폐시키며 그 군대를 몰아 내는 투쟁을 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이 어디에서나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을 쟁취하는 길이다.

3, 혁명 투쟁은 민족 해방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이다.

피압박 인민들은 자신의 왕강한 투쟁으로써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하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로부터의 식민지 국가 및 예속 국가들의 해방을 달성하는 것은 승리적인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독립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쓰딸린) <3>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민족 해방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여 있다. 문제는 로동 계급의 당들과 혁명적인 선진 분자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어떻게 혁명을 령도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의 정확한 령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담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투쟁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당이 인민 대중을 쟁취하는가 못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 군중을 쟁취하여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지 않는다면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 투쟁을 전개할 수 없으며 혁명을 령도할 수도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계층을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

당은 특히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고 그 령도권을 확고히 보장하며 농민 대중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쟁취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 대중은 혁명의 주력 부대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들은 락후한 농업 지대로 남아 있다. 이 지역들에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거의 토지가 없거나 척박한 땅 조각에 의지하여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빈농민이며 고용 농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반제 반봉건적 민족 해방 혁명에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성이 강하고 투쟁에서 견결하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을 농민 대중의 리해 관계와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투쟁에 광범히 동원할 때에 혁명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농민 대중의 혁명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믿음성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이라고 하며 별로 큰 혁명적 의의를 가지지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립장이 아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이 처한 구체적인 형편을 정확히 분석함이 없이 덮어 놓고 농민 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농민 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로농 동맹을 부정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거부하는 반맑스-레닌주의적 태도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은 투쟁에 궐기한 농민 대중이 얼마나 장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을 정확히 령도할 때 어떻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지닌 중요한 임무는 농민 군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하며 농촌을 강

력한 혁명의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농민과 함께 청년 학생, 지식인을 투쟁에 광범히 끌어 들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자신의 압박 받는 처지로 하여 민족적 각성이 높으며 반제 의식이 강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 민족적 각성과 반제 의식을 고취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서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청년 학생, 지식인들 속에서의 사업을 강화하며 이들을 조직하고 부단히 단련시키며 혁명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반제 력량을 튼튼히 단결시키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킬 때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하며 인민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 결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하며 유리한 정세 하에서는 서슴없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더우기 인민들 자신이 투쟁에 궐기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옳게 조직하고 거기에 의식성을 부여하며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세가 요구할 때에는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당은 이러한 혁명의 전위 부대로서, 혁명의 참모부로서 로동 계급과 혁명에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당이 군중의 뒤꼬리를 따르며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당이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혁명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무장 투쟁을 요구하며 인민들 자신이 무장을 들고 진출하는 결정적인 시각에 《평화적》 방법만을 제창하면서 그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혁명 력량이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수정주의자들이 내려 먹인 《평화적 이행》의 로선은 최근 년간 일련의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 큰 해독을 끼쳤으며 또 끼치고 있다.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 투쟁을 전개하던 무장 대오 속에 《평화》 병이 옮아 가서 혼란을 조성하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투쟁의 길에서 물러 서게 되였다. 일부 나라의 혁명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반혁명의 류혈적 탄압 앞에서 실패하게 되였으며 혁명 력량은 큰 손실을 당하게 되였다.

혁명 군중은 무장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투쟁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서 《평화》 타령만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폭력에 항거하여 싸우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며 반혁명의 공세가 무서워서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피압박 민족들은 어느 때에도 해방될 수 없으며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서 능히 거둘 수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 하게 하였으며 피할 수 있는 희생도 면하지 못 하게 하였다.

만일 로동 계급의 당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혁명을 령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급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군중을 잃고 대중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투쟁에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폭력적 투쟁과 비폭력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야만 승리적인 해방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만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폭력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폭력적 투쟁에 준비되여 있지 않는다면 혁명 력량은 정세 발전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례외 없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에게 평화적으로만 해방 투쟁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족 해방 투쟁에서 폭력적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비폭력적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그 나라 당이 결정할 문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항 여하와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고 비폭력적 투쟁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이할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응당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무턱대고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군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중을 탄압하는 착취 계급들에게 달려 있다. 지배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 군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혁명 군중이 폭력으로써 대항해 나서는 것이다.》(김 일성) <4>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할 때 인민들은 앉아서 희생만 당할 수 없다. 반동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무장한 반혁명에 대치되는 혁명적 무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세력의 폭압 밑에서 혁명 력량을 보존할 수 없으며 투쟁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장 투쟁은 반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다.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 무장 투쟁에 궐기한다면 그것은 불패의 힘으로 되며 어떠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일곱 자루의 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꾸바 인민은 영웅적인 항쟁으로써 미제의 괴뢰인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승리하였다.

수백 자루의 렵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알제리아 인민은 수십만의 병력과 각종 현대적 무기를 동원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7여 년 간 영웅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오늘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미제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자기들의 투쟁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앙골라 등 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치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으나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라면 인민들의 이 영웅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피압박 민족들의 무장 투쟁을 적극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이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살 행위》이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이니 하며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열핵 전쟁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웨치고 있다. 이 얼마나 괴이한 소리인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핵 무기 시대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의 구별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이 다 인간 살륙의 범죄이며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란폭한 위조이다.

물론 핵 무기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핵 무기는 전쟁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열핵 전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을 그만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권도 자유도 영예도 다 저버리

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여도 좋다는 것이다.

그들의 책동은 제국주의자들과 한 패가 되여 피압박 인민들을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협박 공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갈로써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을 놀래울 수는 없으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은 헛된 시도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말로써나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인민들은 누가 혁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누가 혁명을 반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피압박 인민들은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철저한 반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침략 책동을 파탄시킬 것이다.

오늘 민족 해방 투쟁은 어느 때보다 로동 계급의 당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혁명 투쟁의 원칙을 견지하는 그러한 당과 그러한 투사들만이 전위 부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멈추어 세울 수는 없다.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와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다.

4,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민족 해방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투쟁의 결과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사회는 계속 전진할 것을 요구하며 생활은 그 해결을 기다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로동 계급의 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이 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대립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계속 견결히 반대하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에서 물려 받은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을 퇴치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정치적 독립의 달성으로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는 반제 투쟁 과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로동 계급의 당이 부르죠아지들과 합작하여 경제 건설이나 하면 되고 혁명을 더 전진시킬 필요가 없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 도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쟁취한 독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유해로운 주장이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인민 대중은 하루속히 낡은 질곡에서 벗어 나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며 자기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

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였다고 하여 아무러한 투쟁도 없이 사회적 진보와 독립의 공고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직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새롭게 사회를 개조함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정이다.

민족 해방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우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낡은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생산 관계를 타파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압력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독자적인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모든 혁명적 조치는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들의 반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계층들 사이의 계급적 모순이 점차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투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서 일어 나는 계급들 간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사회 혁명 과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적 및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 력량을 결속하여 반제 반봉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 투쟁의 법칙을 무시할 때 혁명이 어떠한 우여 곡절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은 허다한 력사적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

사회 혁명이 심화되고 계급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민족 부르죠아지들의 동요성은 점차 표면화된다.

외래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들과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족 부르죠아지들은 근로 인민들과 함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들은 근로 대중의 장성하는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진출에 불안을 느끼며 중도에서 혁명을 포기하고 반동 세력들과 결탁하려는 경향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부르죠아지의 진보적 측면을 지지하며 그와 동맹하는 동시에 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견제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관계에서 로동 계급의 당은 언제나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당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부르죠아지들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함께 투쟁하여 나갈 것을 원한다.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가 통일 전선에서 계속 단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선 민족 부르죠아지가 진정으로 전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가 아니 하는가에 달려 있다. 민족적 리익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부르죠아지들이 진실로 민족적 리익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존중히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 및 온갖 반동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로동 계급과 진보적 부르죠아지 사이의 단결은 공고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이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리익을 전 민족의 리익 우에 올려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되며 따라서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이러한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만약 당이 반동화한 부르죠아지들을 덮어 놓고 지지하며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당의 독자성은 상실될 것이며 혁명적 군중을 잃고 결국 혁명 자체를 망치게 할 것이다.

반동적 부르죠아지에 대한 태도에서 인도 공산당의 당게 집단은 수치스러운 투항주의적 립장에 굴러 떨어졌다. 당게 집단은 프로레타

티아당의 혁명적 원칙을 집어 던지고 반동적 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지지》할 것을 맹세하여 나섰다.

그들은 반동 정권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국제주의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를 중상 비방하는 사회배외주의자로 전락하였으며 공산당을 사분 오렬케 하였다.

오늘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게 집단의 추악한 행동을 지지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 행위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민주주의 혁명 행정에서 어디까지나 로농 동맹을 튼튼히 하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굳게 단결시켜야 한다.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사회의 혁명적 개조는 결국 로동 계급의 당의 힘과 로농 동맹의 견고성에 달려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이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 전선을 옳게 조직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령도하여 나간다면 혁명에서 능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독립한 인민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향한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자본주의는 인민들에게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 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나라의 부강한 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어떠한 정황 하에서나 자기의 원칙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대중의 힘을 적극적으로 단합 동원시켜 새 사회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민족 국가들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민족 국가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현 시기에는 다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과 락후한 지역 사이의 구별》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침략적인 제국주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협조》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혼란을 가져 오는 위험한 견해이다.

독립한 인민들이 진행하는 사회적 변혁과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의 식민지에서 물러 서지 않았으며 새로운 형태로 부단히 침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 독립한 인민들에게 각종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통제를 가하여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서슴없이 무장 침공까지도 감행하며 민족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각종 파괴 활동을 진행한다.

정치적 독립이 달성된 후 민족 국가들에서 반제 투쟁은 약화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연 첨예하게 진행되며 각 방면에 걸쳐 더욱 복잡화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을 해방된 인민들의 《벗》이나 《은인》처럼 묘사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도 민족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줄 수 있다는듯이 꾸며 대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원조》가 《수세기 동안 뒤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마치도 군비 철폐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얻어 낸 돈으로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돌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력사적 기간 내에 이 나라들은 선진 공업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게 될 것이라고 떠든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잠꼬대와 같은 황당무계한 소리다.

이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계급적 립장에서 얼마나 멀리 굴러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에 의거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실례가 있는가?

그와는 반대로 현실은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존하면 할수록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며 경제 형편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소위 《원조》는 민족적 독립 국가들을 다시 예속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 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김 일성) <5>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략탈을 통하여 배를 불린 제국주의 강도배들이 갑자기 《선심》을 쓰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경험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그 나라 통치 집단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거나 그 괴뢰로 전락된 곳에서는 사실 상 여전히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처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평등한 기초 우에서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은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적지 않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자력 갱생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 토대 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력사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외부의 원조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외부의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민족 국가들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해방된 인민들이 서로 유무 상통하며 서로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자연 조건이 있다.

경제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이 나라들은 각이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제 기술들을 서로 교환하고 호상 방조한다면 각 민족 국가들에서의 경제 건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먼저 해방되였거나 비교적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은 뒤늦어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을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해방된 인민들의 긴밀한 뉴대와 호상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과 경제적 침투를 분쇄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새 사회 건설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민족 국가 인민들에게 허심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성의 있는 원조를 주어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국가들에 주고 있는 경제 기술적 원조는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원조는 무엇보다도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독립의 공고화와 번영을 도와 주려는 진정한 념원에 립각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는 어떠한 정치적 부대 조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경제 기술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위반된다면 민족 국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민족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계급적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나라의 반동 계층들에게 원조를 주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까지도 꺼리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결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민족 국가 인민들 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한 패가 되여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의 벗과 원쑤를 구별하지 못 하면 그것은 위험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응당 비판되여야 하며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고수하며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 국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음모 책동도 민족적 독립의 길에 들어 선 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방 중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해방된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 수 없다.

5,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이며 그 강력한 동맹군이다.

자본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과의 직접적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며 식민지 민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세계 혁명 발전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레닌은 일찌기 민족 해방 투쟁이 담당하게 될 거대한 혁명적 역할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수백 수천만의 주민들이—사실 상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독자적이며 적극적인 혁명 력량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박두하는 세계 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 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 인구의 대다수 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6〉

레닌의 예언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세계 인구의 3 분의 2가 살고 있으며 방대한 자연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이 거대한 힘을 가진 대륙들이 제국주의의 후비로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력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족 해방 혁명은 들끓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반은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

도처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련속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력량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위대한 혁명 과정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 위업은 거대한 힘을 얻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지위를 강화하며 국제 로동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으로 이제 세계 혁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충분히 또 절대적으로 보장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은 사회주의 진영 및 국제 로동 운동과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현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다.

그러나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그것을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소부르죠아 운동 또는 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동방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민족 해방 운동이 낡은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 나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로동 계급이 출현하고 장성함에 따라 이 나라들에 로동 계급의 당들이 조직되였다. 이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를 령도하게 되였으며 이 운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합류하였다.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민족 해방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혁명의 거류를 어떻게 단순히 부르죠아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무력한 소부르죠아 운동으로 묘사할 수 있겠는가.

로동 계급이 아직 형성되지 못 하였거나 미약한 나라들에서는 다른 계급이 민족 해방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그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그 운동에 프로레타리아적 요소가 없거나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운동일 때에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현 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큰 비명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는 실제적 결과를 보고 그 혁명적 의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약하며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적기 때문에 이 지대가 현 시대의 강력한 혁명 투쟁의 무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 2 국제당 지도자들의 낡아 빠진 반혁명적 《리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바로 제 2 국제당의 변절자들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혁명이 일어 날 수 없다고 뇌까렸다.

이들의 《리론》이 력사적 실천에 의하여 완전히 매장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만 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제 조건이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를 기계적으로 따질 수 없다.

민족 해방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수효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도 로동 계급의 당이 수정주의에 물 들어 옳은 지도를 보장하지 못 하면 혁명의 불'길은 일어 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세아의 일

련의 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규바에서는 산업 프로레타리아트가 비교적 적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실현되였다.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는가 안 되였는가 하는 것을 개별적인 나라의 범위에서 고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어느 고리에서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여 있는가, 어디에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가, 어디에 혁명 력량이 준비되여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혁명적 폭풍의 지대로 전변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지대에 혁명을 낳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이 집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이 나라 인민들 사이의 모순, 이 나라 착취 계급들과 근로 인민들 사이의 모순이 엉켜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들 및 독점 자본 집단들 호상 간의 모순이 이 지대에서 충돌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모순도 또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의 밑바닥에는 계급적 모순이 놓여 있다.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 간의 모순은 우선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 계급과 식민지 예속 국가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 간의 모순이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로동 계급과 인민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이중 삼중의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민족적, 인종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은 토착 지배 계급들의 폭압과 결합되여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역 인민들에게 더욱더 혹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들을 불가피하게 혁명의 길로 추동하고 있다.

이 지역 일련의 나라들에는 혁명을 담당 수행할 만한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포악한 탄압 속에서 자라 난 혁명적인 로동 계급과 함께 혁명적인 농민 대중들이 있으며 세련되고 단련된 일련의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수 많은 전투에서 이 지역 인민들과 당들은 강력한 혁명 부대로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를 때려 엎는 혁명의 폭풍이 그처럼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앙양되는 민족 해방 혁명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혁명을 하자고 하는가 하지 말자고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민족 해방 운동을 멸시하거나 그 힘을 믿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거대한 혁명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독자적으로 혁명할 수 없으며 오직 구라파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만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헤게모니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외곡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구라파의 로동 계급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며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의심할 바 없이 한 나라의 범위에서 농민 대중과 근로 인민들에 대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를 보장하는 것은 그 나라 혁명 승리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이 명제를 구라파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의 호상 관계에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협잡 행위이다.

력사적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독자적으로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중요한 것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이 호상 지원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당자는 어느 한 쪽이 령도하고 령도

를 받는 그러한 관계나, 그 어떤 종속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구라파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렬등 민족》이라고 하는 반동적 부르죠아 관념의 산물이다. 맑스-레닌주의자는 결코 이러한 부르죠아 관념의 포로가 되여서는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세계 혁명에 대한 《령도적 역할》을 맡아 나서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혁명적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은 혁명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투쟁을 멸시만 한다면 그것은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 혁명 전선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투쟁 성과를 귀중히 여겨야 하며 거기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지역적 및 인종적 편견이 있을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투쟁하든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을 수행한다는 공통적 목적 밑에서 서로 련결되여 있다.

만약 오늘 구라파에서 혁명이 일어 난다면 그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투쟁에 커다란 지원으로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구라파 로동 계급에게 강력한 지원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승리로 되며 공동의 기쁨으로 된다. 정세가 성숙되고 대중들이 투쟁에 준비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일어 나는 것이 못마땅한 것으로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자기들의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내려 먹이는데 흔히 자기 당의 《권위》와 《전통》을 내휘두른다.

이러한 당들의 전통과 권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존경의 뜻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이러한 당들의 과거의 혁명 업적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떻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통이나 과거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으로써 혁명 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투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적 당들의 권위가 확립된다. 로동 계급의 당이 혁명적 립장에서 물러 선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빈 말을 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싸우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세계 혁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민족 해방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것은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길이며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촉진하는 길이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진실로 세계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혁명의 폭풍 지대로 화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며 그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의 모든 혁명 력량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현 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혁명 부대들이다. 이 혁명 부대들은 호상 굳게 단결하며 전투적 련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단결은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손에 장악되여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단결의 강화는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되여 있을 때에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장성하는 혁명 운동을 가로 막기 위하여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며 혁명 력량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매개 전선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제멋 대로 날뛸 수 없도록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사회주의 진영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을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 의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를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피압박 민족들이 전개하는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의 동맹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승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기의 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을 싫어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방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압박 민족들과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층과 타협하며 식민지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식민지 소유 렬강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과 국제주의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국제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대도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서 피흘려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무슨 진실한 국제주의적 행동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하였다고 하여 결코 자기의 혁명적 임무를 다 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직 수억만 인민들이 자본의 억압 밑에 신음하며 그와 투쟁하고 있는 것을 못 본 체 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을 통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국의 로동 계급과 식민지 인민들을 리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한다. 그들은 로동 계급을 민족 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사상으로 더럽히려 하며 식민지에서 략탈한 초과 리윤의 일부로 로동 계급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로동 계급의 대렬을 와해시키려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 지배층의 이러한 간계와 음모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계급적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다.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들은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지배층에 추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혁명 투쟁을 통한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지원을 함이 없이는 사실 상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 사이의 혁명적 련대성이란 공담에 불과하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 <7>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로동 계급이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지원을 그 어떤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이다. 원조를 자랑하기만 좋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원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 사이의 관계는 항상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지원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여 준다.

다른 한편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로동 계급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은 혁명적 공동 전선의 형성과 공고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쓰딸린) <8>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공동 전선—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오늘 반제국주의 공동 전선에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그 산하에 세계의 수억만 근로자들과 진보적 력량을 망라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민주 단체들의 활동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중심 과업의 하나다.

지난날 이 단체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사실 상 피압박 민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공고한 평화와 인민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국제 민주 단체의 활동을 그 본래의 사명과는 딴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단체들이 반제 투쟁을 포기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이 일면적으로 평화적 공존과 군비 철폐 로선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조직들을 혼란시키며 분렬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 단체들의 회의 연단에서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조차 울려 나오지 못 하도록 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부르죠아지들을 놀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과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한 동맹군을 잃어 버리면서라도 부르죠아 상층부와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지배층과의 타협과 결탁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국제 민주 단체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기구로부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여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키는 부르죠아 평화주의 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제 민주 단체들은 결코 그 본래 사명에서 물러 서서는 아니 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행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적 처지와 공통적 목적은 이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위하여 굳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때에 제국주의를 궁지에 몰아 넣고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며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공동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정부들 사이에서, 직업별 단체들 사이에서 련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회의들을 소집하며 공동 투쟁 기구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호상 투쟁 경험을 교환하고 공동 투쟁 방침을 세우며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 관계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와 요구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을 강화하는 길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노력도 맹렬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각 사회계 대표들이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대책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반제 투쟁이라기보다도》 《지리적》, 《인종주의적》인 《폐쇄적 행동》이라고 중상 비방하고 있다.

얼마나 괴이한 론법인가.

맑스-레닌주의자라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응당 이를 기뻐하며 적극 지원하여 세계 혁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단합된 국제적 활동이 반제 투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특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남아 있는 종족적, 종교적 차이 기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알륵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에서는 아세아 사람들끼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이 국제 회의들과 통일적인 공동 기구들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 책동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인종주의》니 《지리적》이니 하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인민들을 호상 리간시키고 반목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정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력사적인 반둥 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미 조직되여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공동 조직을 반대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요컨대 일부 사람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대하는 진의 또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으며 근본적으로 혁명을 싫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기본 담보라고 확신한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

오늘날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각 나라 로동 계급의 당들을 분렬시키고 파괴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당의 권위를 악용하여 각국 당들에 수정주의를 내려 먹여 그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당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옳은 령도를 보장하지 못 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남의 당 내부 문제에 되는 대로 간섭하며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련의 당들에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을 배척하며 이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하는 일대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자기들의 수정주의를 부식하고 합리화하는 데 악용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지시와 강요에 따라 일부 당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혁명적 활동을 억제하며 그들에게 《종파주의》, 《분렬주의》 등 온갖 사상적 감투를 씌워 박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당 대렬에서 부당하게도 내쫓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상 각국 당들을 분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을 공고히 하는 혁명적인 조직 원칙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당 대렬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도리여 당을 분렬시키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 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당들에서 부당하게 축출 당한 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단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조직들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맑스-레닌주의와 세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의견 상이 문제를 어물어물 그 대로 덮어 둔다면 그것은 수정주의를 더욱 조장시키여 세계 혁명의 위업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견 상이 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자연 발생적으로 내여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혁명의 리익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대렬에 맑스-레닌주의와 대치되는 어떤 사상이 침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 대렬 내에 수정주의가 퍼지는 것을 한시라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옳고 그른 것을 명백히 갈라 내야 한다. 당 대렬에서 수정주의를 철저히 청산하고 당을 맑스-레닌주의 기초 우에서 혁명적으로 꾸려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 투쟁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전진을 할 수 있다.

수정주의는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초 우에서 새로운 위대한 단결을 이룩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일치하게 합의한 행동의 지침인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와 그리고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여야 한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자.

* *

<1>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37 페지

<2> 레닌 전집 제 21 권 407 페지

<3> 쓰딸린 저작집 제 7 권 191 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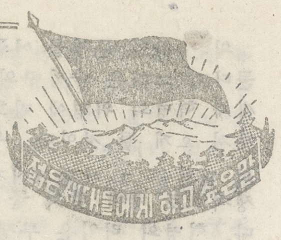
<4> 인민 군대 내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35 페지

<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60 페지

<6> 레닌 전집 제 32 권 629 페지

<7> 맑스 엥겔스 전집 제 2 판 제 18 권 509 페지

<8>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200 페지



혁명 전사는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 문 섭

원래 혁명이란 《누가 누구를》하는 준엄한 계급 투쟁이다. 혁명의 승리는 반혁명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에는 중중첩첩한 난관도 있으며 희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낡은 사회 제도를 전복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이것은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동서 고금의 혁명 력사를 들추어 보라!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혁명이 격렬한 투쟁과 희생이 없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고 헐하게 승리한 례가 있었던가! 그 어느 반동 계급이 력사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 난 일이 있었으며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근로자들에게 선사한 일이 있었던가! 노예 혁명, 농노 혁명, 부르죠아 혁명, 민족 해방 혁명도, 프로레타리아 혁명도, 파란 곡절과 시련과 희생을 동반하지 않은 혁명이란 없다.

국제 로동 계급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자본의 철쇄를 끊고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원쑤들과의 결사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뼈 아픈 실패도 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투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이 나타나 혁명 대렬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실패에도 락심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으며 비겁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건 말건 계속 혁명의 붉은 기치를 고수하였다.

때로는 지하에, 때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때로는 철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 없이 공격하였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1930 년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2 년도 아닌 15여 성상이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들에게는 정규군의 지원도 후방도 없었다. 때로는 설한풍이 살을 에이는 령마루에서 잠을 잤고 끝없는 밀림과 눈보라를 헤치며 수천 리의 강행군도 하였고 굶주림을 이겨 가며 싸우기도 하였다. 혁명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곤난을 웃음으로 이겨냈으며 죽음도 태연하게 맞이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굳세고 아름다운 것—그것은 공산주의자의 혁명 정신이다. 그 어떤 쇠사슬로도 혁명가의 고매한 정신을 묶을 수는 없으며 절해 고도의 류형지도, 두터운 감옥의 담'벽도 그들의 강철 같은 혁명 정신을 꺾을 수는 없다. 그 어떤 고문대로도, 회유와 기만으로도, 총칼로도, 대포로도, 원자탄으로도 굽힐 수 없는 것—그것은 혁명가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이다.

1941년 2월 어느 날 녀성 유격대원 최희숙 동무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전투끝에 부상 당한 몸으로 놈들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였다. 원쑤들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체포되였다. 너희들 비밀을 말하면 살려 줄테다.》

이 때 희숙 동무는 놈들의 면상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런 건 네 놈들의 앞잡이들 보고나 지껄여 대라. 사람인 내가 어떻게 너의 개들이나 알 말을 알아 들으란 말이냐?》

약이 오른 놈들은 시뻘겋게 단 쇠꼬치로 그의 몸을 지지기도 하였고 총창으로 찌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이 강의한 녀성 투사의 혁명 정신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놈들을 향하여 분연히 웨쳤다.

《네놈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 일성 장군이 계시고 삼천만 인민이 있다. 너희들은 우리 혁명의 불'길을 아무런 힘으로도 막지 못 한다.》

포진 고문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놈들은 야수처럼 달려 들어 그의 두 눈을 뺐다. 그러나 희숙 동무는 몸을 일으키고 웨쳤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삼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 날이 보인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그의 얼굴에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숭엄한 미소가 떠올랐다. 원쑤들은 최 희숙 동무의 고매한 정신 앞에 전률하였다. 놈들은 끝내 공산당과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이 녀성 유격대원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의 이와 같은 강의한 혁명 정신은 어디로부터 흘러 나온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목숨 바쳐 수행하는 혁명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높은 신념과 맑스—레닌주의 진리에 대한 확신,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 락관주의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빨찌산들이 무엇을 믿고 간고한 투쟁을 하였는가? 믿은 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하나 뿐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싸웠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와같은 신념으로 충만되여 있었기에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던 리 제순 동지는 자기의 최후를 앞두고 안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조선의 독립과 광복을 위하여 김 장군의 전사인 영광을 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운 보람을 안고 웃으며 죽겠소. 웃으며…》

그 당시 한 나어린 소년 혁명가는 옥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쑤들은 혁명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밝아 오는 아침 해'살을 쇠사슬에 얽어 맬 수는 없다. 보라! 공산주의 태양이 산 너머에서 눈부시게 비치여 오고 있지 않는가!》

참된 혁명 전사들은 바로 이렇게 죽음

도 웃으며 태연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간고한 혁명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야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세계 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 위대한 혁명 위업을 수행하는 앞길에 어찌 간난 신고가 없겠는가!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 투쟁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일을 담당하는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들이 언제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한 포롱이를 담당해 나서며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하게 앞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혁명의 승리는 오직 난관과 희생을 겁내지 않고 시련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용감한 사람에 의해서만 쟁취된다.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혁명가가 아니다.

오늘 세계에는 제국주의자들이 큰 소리를 한 번만 쳐도 벌벌 떨면서 혁명가요,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놀라게 해도 안 되며 성나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성만 내면 무서운 핵 전쟁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니 아무리 제국주의자들이 발광하여도 반항해서는 안 되며 혁명 투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핵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본주의 나라들도 사회주의 나라들도 다 멸망하고 말며 부르죠아지도 프로레타리아트도 다 죽어 버릴 판인데 살고서야 혁명이지 죽고서야 무슨 혁명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의 잠꼬대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 정책에 겁을 집어 먹은 투항주의이며 맑스—레닌주의자의 립장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희생이 두렵다고 하여 투쟁하지 않고 팔장을 끼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느 때 가도 해방과 독립은 얻을 수 없다.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 밑에서 혁명을 그만 두라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노예의 운명을 영원히 감수할 것을 설교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혁명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놀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근로자들과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판가리 싸움인 것이다. 싸워야 해방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며 싸우지 않으면 노예의 고통을 영원히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제 힘으로 싸워야 하며 남의 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조국 강토의 절반을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고 있다. 남조선 2천만 동포들이 미제의 피묻은 총칼 밑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총을 놓고 혁명을 그만 두라고 감히 떠벌릴 수 있단 말인가!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우리의 립장은 바로 이렇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희생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며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고 조선 혁명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청년들이 지난날에도 항상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함 없이 그 어떤 희생에도 비겁함이 없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 수행에서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혁명 전사답게 항상 굳세게 살며 싸우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방향과 아울러 그에 알맞게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편집부는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문헌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싣는다.

편 집 부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에 대하여

김 화 천

사회주의 하에서는 축적이나 소비가 다 같이 전체 인민의 리익에 복무한다.

축적이란 국민 소득의 일부를 생산의 확대와 기타 사회적 예비의 조성, 문화 후생과 관련된 기본 건설에 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는 근로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먹고 입고 쓰는 데 리용되는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축적이 로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피땀을 짜 내기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되며 따라서 축적이 소비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면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정이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지주들을 때려 부시고 전체 근로 대중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을 생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축적과 소비는 다 같이 인민을 위한 것으로서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축적은 앞으로의 소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장래의 소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랜 기간을 두고 볼 때 사회주의적 축적과 소비는 합치된다.

례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공장과 철도, 관개 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더 설치하고 경지 면적을 늘구는 데 자재와 로력,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생산을 더 많이 내여 근로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과 소비가 아무렇게나 진행되여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축적이나 소비가 다 국민 소득의 한 부분이라고 하여도 이들 간의 옳은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없다.

축적이 인민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여 그에만 치중한다면 소비의 몫이 그 만큼 적어짐으로써 인민들이 당면하게 요구하는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반대로 인민들의 당면한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킨다고 하여 많은 부분을 소비에 돌린다면 축적이 적어지므로 현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으나 장래에 가서는 곤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축적을 많이 하여도 안 되며 반대로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도 안 된다. 오직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조절함으로써만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인민 생활을 계통적으로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누구든지 이 문제에서 과오를 범하면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할 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는 축적이나 소비나 다 같이 전체 인민의 리익에 복무한다. 그러나 적당하게 축적하고 적당하게 소비하지 않으

면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당은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하여 왔는가?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함으로써 축적을 계속 증대시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들의 소비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시종일관 강구하여 왔다.

당은 나라의 경제 형편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특히 당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인민 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 왔다. 그리하여 당과 정부는 1954~1960년 기간에만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30억 원(구화폐로써는 3,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다른 편으로는 7 차의 물가 인하와 4 차의 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소비에 돌려지는 많은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워낙 나라의 경제 토대가 매우 약한 데다가 전쟁에서 피해가 류례 없이 컸던 그런 형편에서 축적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소비도 동시에 따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근로자들의 자력 갱생의 정신과 혁명적 각오, 그리고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를 발동시킴으로써 그들이 인민 경제 내부에 있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자체로 적극 탐구 동원하도록 지도하였다. 당은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수를 계속 증가시키는 한편 특히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원가를 저하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내부 예비 동원에로 전 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있어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은 축적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꾸림에 있어서 경공업과 농업에 훌륭히 복무하며 인민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부문들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은 특히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가 자금을 덜 들이고도 각종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한편 절약된 많은 자금을 중공업 발전에 돌릴 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락후하고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다 같이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이 지난 기간 나라와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옳게 조절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공고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인민 생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

우리 당은 금년도에 이미 축성해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정비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로 나가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당이 금년에 소비에다 큰 힘을 돌리고 중공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데 주되는 힘을 돌린다고 해서 축적과 소비, 나라의 경제 토대 강화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이 지금까지 견지하여 온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축적과 소비를 어떤 고정된 격식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조절하는 가장 현명한 조치로 되는 것이다.

비록 일시적이나마 소비가 축적에 비하여 빠르게 장성하며 경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 속도를 앞선다 하더라도 그것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축적의 비중이 큰 것이며 중공업의 우선적인 장성이 변함 없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축적과 소비의 이러한 해결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장성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공업 그 자체를 써 먹자는 것이 아니라 경공업, 농업 등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부문들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 제때에 보내 주기 위한 것이다.

중공업이 일단 상당한 토대를 가지게 된 조건에서 그가 경공업과 농업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케 하는 것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간의 관계가 보다 높은 기초 우에서 긴밀히 맺어지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공업이 적극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경공업과 농업을 현대적인 토대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은 이미 이룩된 자립 경제의 토대를 더욱 반석 같이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를 이와 같이 해결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땀흘린 보람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가, 지주와 같은 착취자들과 기생충들을 타도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를 페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이 현재 이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당은 모든 가능성들을 충분히 타산하고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본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력사적으로 락후한 경제 토대와 함께 극히 낮은 생활 수준을 물려 받았다. 봉건 통치배들의 간악한 학정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후 그들의 무자비한 략탈로 인해서 인민들은 초보적인 생활 도구와 가장집물조차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전후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면서 한편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는 데 언제나 크나큰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의 생활은 몰라 보게 개선되였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커다란 성과이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때문에 당은 7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특히 1~2 년 내에 모두가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게 할 것을 목표로 내 세우고 그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 목표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변혁이 일어 나게 될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꿈꾸어 오던 숙망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산 현실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이 윤택하고 더욱 유족해질 때 그들은 계속 축적을 잘 하여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 튼튼히 꾸려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의 몫을 증대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에 지출된 자금을 거두어 들여 그것을 다시금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데 리용하는 과정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축적에 주력하여 중공업을 건설해 가지고 그것을 경공업과 농업에 잘 복무케 하여 인민 생활을 올려 세운 다음에는 또 축적해서 중공업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만드는 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에 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있는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특히 기술 혁신의 불'길을 높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설비 리용률을 더 높이고 대담하게 기술 혁신에 달라붙어 보다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보다 질 좋고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나라의 재부는 더욱 늘어 나고 인민 생활 필수품도 넉넉해질 것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은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응당 이 벅찬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우리들의 중요한 임무는 또한 모든 일터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는 것이다. 공장 건물, 자기가 다루는 기대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못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에는 푼전을 아껴 가며 축적한 보람이 깃들어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인민 소비를 증대시키는 수단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성껏 다루고 아껴 쓰면 그 만큼 나라의 부담은 적어지며 그 대신 나라의 경제 토대는 강화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밑천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공화국 영웅 권 혁창—

세계 사람들은 1950년 미제에 의하여 도발된 조선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침략 전쟁에서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되여 꽃피여 오르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조선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나아가서 미제는 이 전쟁에서 조선을 아세아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는 력사 상 전대 미문의 야수성과 횡포성, 그리고 저들이 호언하는 《기술적 우세》로써 이 전쟁을《속전 속결》하려 하였다.

미제 살인귀들은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우리 인민들을 야만적 방법으로 학살했으며 8,700 개의 공장, 60만 동의 가옥,. 5,000 개의 학교를 파괴 소각하는 등 문'자 그대로 우리 나라를 초토화하였다. 이 참상에 대하여 미국의 진보적 작가 마크 트웬인은 《미 합중국 국장의 월계수는 딸라의 피가 묻은 백골과 두개골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만행도, 《기술적 우세》도 사랑하는 조국의 방위에 용감히 일떠선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놀래울 수 없었다.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아들딸들은 조국의 준엄한 시각에 자유와 독립의 성스러운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오만한 침략자들에게 보복의 칼날을 박았고 끝내 놈들을 꺼꾸러뜨렸다.

1951년 가을 나는 동부 전선 영웅의 봉우리인 1,211 고지에서 싸웠다.

조선 전선에서 군사 정치적 패배를 거듭한 미제는 군사적 요충인 1,211 고지를 들어 전 전선을 일거에 원산 계선까지 떠 밀므로써 《영예로운 정전》을 이룩해 보려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미제는 이 일대에 미 2 보사, 미 해병 1 사 등 《정예 부대》들과 괴뢰군 3 보사, 5 보사, 괴뢰 해병 련대, 불란서 대대 등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하였다. 하루 3—4만 발에 달하는 《최대의 폭격》 과 《최대의 포격》이 감행되였다. 고지는 언제나 몽롱한 연기와 불'길 속에 싸였고 바위는 녹아서 재가 되였다.

그러나 어떤 힘으로도 놈들은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조국의 자유 독립을 위하여 15여 성상을 싸운 항일 빨찌산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이어 받아 조국 땅의 한치 한치를 붉은 피로 물 들이면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지시한 그대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우리의 진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하여 귀중한 우리의 조국 강토를 지키겠다는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놈들의 《추기 공세》의 막이 오를 무렵인 1951년 9월 초 사단 당 열성자 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모든 전사들은 이 영예로운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였다.

그들은 파상식으로 고지에 기여 오르는 원쑤들의 무리 속으로 수류탄 묶음을 안고 뛰여 들었으며 피끓는 가슴으로 원쑤의 화구를 틀어 막았다. 때로는 위생병도 돌격전에 나섰고 취사병도 육박전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심장은 오직 원쑤 미제를 한 놈이라도 더 죽치고 사랑하는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수호할 하나의 의지, 하나의 신념으로 높이 고동치고 있었다.

전투에서 중상 당한 몸으로도 굴하지 않고 원쑤와 싸운 탁 진태 동무는 자기의 최후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우리는 부상 당하였다. 그러나 동무들! 심장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지를 사수하자!》

중대 민청 위원장이던 차 상은 동무는 가렬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전우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다.

《동무들! 원쑤를 용서하지 말라!
여기에 희생된 전우들의
복수 기록장을 함께 보낸다.
그들의 몫까지 원쑤를 잡자!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이 복수 기록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까지 원쑤들의 주검의 수'자로 채우자.》

나는 이 고지의 동남 쪽 무명 고지 탈환 전투에서 나와 함께 싸운 전우이던 리 수복 영웅을 잃었다.

리 수복 동무는 그 때 열 아홉 살 청춘의 가슴을 활짝 벌려 원쑤의 화구를 틀어 막고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첩을 펼쳐 들고 그가 남기고 간 귀중한 글'발을 살피군 한다. 여기에야 말로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불구 대천의 원쑤 미제를 무찌르던 조선 청년들의 혁명적 의지와 영웅적 기백, 숭고한 정신 세계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담겨 있는가?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바로 이런 사상, 이런 투지로 싸웠기에 우리는 1,211 고지를 원쑤들의 《상심령》으로 되게 하였고 그 기슭을 놈들의《함정'골》로 되게 하였다.

기억도 새로운 1951년 10월 8일 낮 12시 경 원쑤들은 또다시 우리 소대가 지키고 있던 무명 고지에 스럼스럼 기여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때 나는 습격조를 데리고 놈들의 공격 서렬 후면으로 기여 들어 가 배후로부터 원쑤들을 족칠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곧 적병으로 가장한 7 명의 습격조원들을 데리고 1,211 고지와 까칠봉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바람처럼 새여 들었다.

우리 7 명의 습격조가 적들이 차지한 계선까지 접근했을 때 적병 한 놈이 중기관총에 탄창을 끼우노라고 어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날쌔게 달려 들어 그 놈에게 총창을 안기고 중기관총을 탈환하였다. 그리고는 그 중기관총을 들고 놈들의 배후를 후려 갈겼다. 적들은 우리의 기습에 완전히 넋을 잃고 갈팡 질팡하다가 꺼꾸러지군 하였다. 순식간에 고지에는 50여 명이나 되는 《유.엔군》 병사들의 더러운 시체가 썩은 절레 조박처럼 너저분하게 널렸다. 이 때의 통쾌하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우리는 그야말로 총탄이 떨어지면 총창으로, 총창이 부러지면 바위'돌을 구울리면서까지 당의 전사답게 싸웠고 1,211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그리하여 《이 번 추기 공세는 가장 영예롭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지혜로운 대아메리카의 제 1 해병 사단을 위시한 15 개 사단의 병력을 총 동원하였으며 수백 대의 땅크와 우리 미국의 자랑인 각종 포들과 비행기들, 그리고 독가스탄, 싸치라이트까지 총 동원하였으니 이 번 추기 공세야 말로 공산군을 완전 섬멸하고 굴복시키는 대 작전으로 될 것이다.》라고 한 미국 호전 장군들의 장담과는 달리 1,211 고지는 그야 말로 미제 고용병들의 매장터로 되였다. 1,211 고지를 회상할 때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이런 신념이 용솟음친다. 만약 원쑤들이 다시 무모한 공격을 시도해 보라! 그 때는 지난 전쟁 때보다 몇 십 몇 백 배의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실로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력사 상 최대의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200억 딸라 이상의 군사비와 7천 300 만 톤의 군수 물자를 소모하였으며 109만 3,839 명의 고용병을 잃었다.

그러나 침략과 략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미제는 지난날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침략적 야욕에 눈이 뒤집히고 있다.

놈들은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각종 신형 무기와 《특수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투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군사 시설 확장에 미쳐 날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아세아와 남미주에서, 노호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놈들의 머리에도, 발'부리에도 반제 투쟁의 세찬 불'길을 달아 놓아야 하며 끝까지 놈들을 소멸하여야 한다.

이 준엄한 력사의 시각에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변했다고 설교하면서 반제 투쟁과 혁명 투쟁을 포기하라고 떠벌리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없다.

승냥이는 무덤 속에 매장하기 전에는 결코 그의 본성이 변할 수 없다.

우리는 미제 원쑤들이 지구 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결코 총을 놓을 수 없으며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미제 원쑤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 버리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조국 방위의 초소에 굳건히 서 있다.



심 봉 춘

패주하는 적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근위 서울 제 3 보병 사단에 속한 우리들이 남으로 질풍처럼 달려 나가 금강을 건넌 것은 1950년 7월 15일 저녁이였다.

부대의 선두에서 척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정찰조는 누구보다도 바삐 행진하였다. 하루 백 리도 십리'길 맞잡이로 적을 추격하는 아군의 기세에 발을 맞추자면 적들을 앞질러 나가군 해야 했다. 우리가 강을 건너 집결한 곳은 큰 벼랑 밑이였다.

이 때 우리 소대에는 이 날 밤'중으로 성분리에 있는 적의 105 밀리 포진지를 습격하라는 영예로운 전투 임무가 하달되였다. 적 진지 중심에서 금강 강안으로 날아 오는 적들의 대구경 포탄은 강 복판 여기 저기에서 물'기둥을 일으키며 작렬하였다. 그것을 보는 우리 전사들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꽃이 튕겼다. (어떻게 하든 저 놈의 포진지를 까부셔야 한다.) 그 때 소대장이였던 나는 16 명의 대원을 데리고 적의 포진지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깎아 세운듯한 절벽을 에돌아 성분리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이윽고 우리 앞에는 교량 하나가 어렴풋이 나타났다. 나는 대오를 멈춰 세웠다.

(놈들이 교량을 중심으로 방어진을 치고 있지나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급히 1 분대장 한 찬두의 1 명을 정찰로 파했다.

그들의 정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증강한 미군 한 개 중대 력량이 교량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나는 정찰 자료를 접수하고 심중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다리로 건느지 않고 우회해 간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적의 105 밀리 포진지를 소멸할 데 대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력량으로 적들의 한복판을 꿰뚫고 나갈 수는 없을가?)

이 때 나에게는 우리를 척후로 떠나 보내면서 하던 련대장 김 중동 동지의 말이 떠올랐다.

《…항일 빨찌산들이 언제나 적을 통쾌하게 타승한 것은 적의 약점을 포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였소. 동무들도 항일 유격대원들처럼 그렇게 대담하게 적을 칠 줄 아는 그런 정찰병이 되여야 하오…》

나는 분연히 놈들의 한복판을 뚫고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대원들에게 판정된 적정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나의 결심을 말했다. 모든 대원들이 나의 이런 결심에 열렬히 호응해 나섰다. 그들의 눈'동자마다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거렸다.

우리는 곧 캄캄한 어둠속을 누비며 전진하였다. 6~8 메터씩 간격을 보장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은밀히 적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였다.

우리가 놈들의 천막 가까이에 당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련발 총성이 울려 왔다. 잠에 취했던 보초놈이 이상한 기미를 알아 채고 란사하는 총'소리였다. 정황은 몹시 위급하게 되였다. 우리는 쏜살같이 적들의 천막을 짓부시면서 놈들의 한복판을 뚫고 잽싸게 뒤'산에 올라 붙었다. 우리가 어찌나 날쌔게 적진을 빠져 나왔던지 얼떨떨해진 적들은 한참 동안이나 제 놈들끼리 맞불질하고 있었다. 우리는 통쾌한 심정으로 제편끼리 개싸움질하는 놈들의 꼴을 뒤에 바라 보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따라 새'별이 질 무렵 적들의 포진지 근방에 당도하였다.

깊은 수림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받은 명령을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나는 대원들에게 만일 우리가 저 놈의 포진지를 한시 바삐 까부시지 않는다면 아군 부대들이 금강 도하에서 장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을 대평리 계선에서 포위 섬멸할 부대 전투 계획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이 때 갑자기 적 포진지에서 105 밀리 포가 다시 악을 쓰며 짖어 대기 시작하였다. 분노에 찬 전사들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놈들의 포진지에서는 연송 불'빛이 번쩍거렸다.

<개자식들 조금만 더 있으면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말테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나는 감쪽같이 적 포진지를 습격 소탕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파괴조를 조직하고 나머지 인원은 보장조로 행동할 것을 제기하였다. 당원인 한 찬두 동무가 먼저 일어 섰다.

《동무들! 수상 동지는 7월 8일 방송 연설에서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군대를 무자비하게 격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번 습격 전투에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군을 한 놈도 용서 없이 격멸 소탕하겠습니다.

나는 로동당원입니다. 나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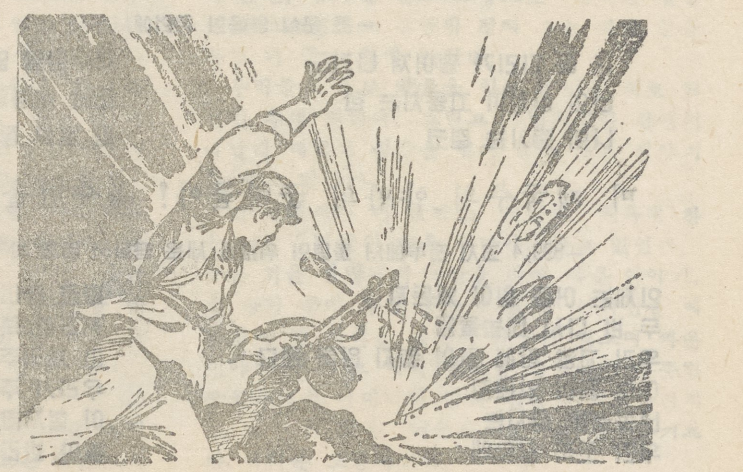
그의 말은 마치도 불을 토하는듯 하였다.

로동당원인 자기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임무를 맡겨 달라는 그의 말 속에는 강한 힘과 깊은 신념이 담겨져 있었다. 로동당원! 이 얼마나 고귀한 칭호인가! 전투장에서 발휘한 그들의 모범성과 자기 희생성들을 나는 언제나 잊을 수 없다.

바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 한 찬두 동무만 하여도 얼마나 훌륭한 로동당원인가! 금강 도하 때만 하여도 그는 적들을 코앞에 두고 우박치는 총탄 속을 제일 먼즘 헤여 건넜였다. 나는 그를 파괴 조장으로 임명하였다. 대렬 앞에 나선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확신에 찬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도 명령을 받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마는 그가 나에게는 더 없이 미덥게 생각되였다. 그에게 조원으로 두 명의 전사들을 붙여 주었다.

우리는 곧 행동을 개시하여 적의 포진지 200 메터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번쩍이는 섬광과 포성으로 미루어 보아 포는 모두 4 문이였다. 나는 곧 2 개의 보장조를 그 부근에 배치하였다.

적의 포진지 배치 상태와 지형을 연구한



한 찬두 동무는 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다. 그는 대원들에게는 각각 포 한 문씩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두 문의 포를 맡아 나섰다. 그리고는 다시 포진지로 기여 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적의 보초놈을 발견하였다. 먼저 선손을 써야 하였다. 한 찬두 동무는 섬광이 번쩍이다 사라지는 틈을 타서 깜쪽같이 보초놈을 까치웠다.

이어 그는 포진지에로 달려 가면서 반전차 수류탄을 힘 있게 뿌렸다. 포 좌지 한복판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확 일었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다른 두 문의 포도 폭발되였다.

양키 포수놈들의 비명이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남의 땅을 송두리 채 집어 삼키려고 기여 든 놈들은 바로 이렇게 처단되여야 하는 것이다. 이리저리 나자빠지는 양키놈들의 꼴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통쾌하기 그지 없었다.

한 찬두 동무가 마지막 포를 짓부시려는 순간이였다. 맞은편 산 경사지에서 살아 남은 포수놈들이 발악적으로 사격해 왔다. 놈들은 중기관총까지 쏘아 대고 있었다.

이 때 한 찬두 동무는 적탄에 왼 팔을 부상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처의 아픔도 잊고 놈들과 맞불질을 하였다. 얼마 후 보장조 성원들의 세찬 화력에 의하여 적 중기 화력은 짓눌리워 버렸다.

순간 한 찬두 동무는

《양키놈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소멸하라!》고 힘 있게 웨치며 마지막 포 한 문도 묵사발을 내고 말았다.

이 때 그들의 익측에서 적의 중기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보장조 성원들의 수류탄 벼락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방금 전까지만 하여도 거만하게 짖어 대던 양키들의 포는 몽땅 녹아 나고 말았다.

한 찬두 동무가 조원들을 인솔하여 가지고 집결처를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길 때였다. 산 경사면에 은폐되여 있던 8 대의 적 포차가 황황히 도망치려는 것을 보았다.

(옳지, 이 놈들도 마저 천당에 보내자!)

이렇게 결심한 한 찬두 동무는 조원들을 지휘하여 적들의 포차에 앉은 운전수들부터 쏘아 눕혔다. 그리고는 8 대의 적 포차에 몽땅 불을 달아 놓았다.

불'길은 삽시간에 온 골짜기를 드러내면서 활활 타번졌다. 그것은 실로 이 나라의 슬기로운 아들딸들이 미제 침략군에게 안긴 준엄한 복수의 불'길이며 심판의 불'길이였다.

그는 곧 우리의 집결처에 도착하였다. 나는 과감하고 대담하게 자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그를 힘껏 포옹하였다. 그는 웃으며 자기의 전우들에게 말하는 것이였다.

《동무들! 부대는 이미 도하를 개시하였을게요. 그리고 아군의 포위망에 든 태평리 계선의 적들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였을 것입니다. 대전 시가를 향하여 진군합시다. 우리들이 제일 먼저 대전 시내에 공화국기를 휘날립시다.》

그는 부상 당한 팔에는 아랑곳 없이 성큼성큼 우리 대렬의 앞에 서서 걸었다. 나는 이 때에도 로동당원으로서의 그의 불굴의 의지와 풍모를 더욱 가슴 뜨겁게 느꼈다.

전투 명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우리는 대전을 향하여 다시 힘찬 발'걸음을 다그치였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조 군실 영웅의 유언에서—

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나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나의 총기는 결코
복수탄을 멈추지 않으리!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미 제국주의 야만의 군대들아! 복수탄을 받아 봐라!

—899,4 고지 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공화국 영웅 박 석봉 동무의 수기에서—

인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두 번 다시 네놈들을
우리 고향 땅에 들여 놓지 않을 테다
어떤 일이 있든지
네놈들을 다시는
우리 조국 강토에
발을 들여 놓지 못 하도록
철저한 죽음을 줄테다
미 제국주의 야만의 군대들아!
우리가 주는
이 철저한 복수를
받아 봐라!

단편 소설



용감성에 대한 이야기

김 봉 식

나는 얼마 전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한 영웅을 취재하기 위하여 현지로 떠난 일이 있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그 영웅은 지금 자강도의 ㅅ 협동 농장에서 관리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네 고장을 삭주—창성 못지 않게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윽고 차는 평양을 떠났다. 나는 취재하러 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버릇 대로 어떻게 하면 그 영웅을 보다 잘 취재하고 그 영웅이 발휘한 영웅성의 밑'바닥에 흐르는 고매한 정신을 두드러지게 드러 낼 수 있을가 하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참말이다. 우리가 그 어느 영웅이 발휘한 영웅성이라던가 용감성이라던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것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나를 구원하여 주었다. 렬차가 순천 역에 닿았을 때였다. 많은 손님들이 내리고 새 손님들이 차에 올랐다. 내가 탄 칸에는 배가 불룩한 배낭을 멘 젊은 군인들이 우르르 밀려 들었다. 그 뒤로 키'골이 장대한 소좌 한 동무가 들어 왔다.

《?!》

그를 본 순간 나는《병철이!》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도 나를 알아 보고는《아니, 이게 명국이 아니야!》하면서 급히 다가 왔다.

그와 나는 하루에도 수천 발의 포탄이 우박치듯 하는 십발 고지 전투 때 생사를 같이 하며 싸우던 전우였다. 그 후 그는 정찰 구분대로 가고 나는 몇 차례의 부상으로 병원 생활에 전전긍긍하는 새 두 사이의 련계는 스스로 소원해 지고 말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여 년만에 그를 만나다니…

참말 전선에서 함께 싸우던 막역한 전우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건 후 그는 나의 앞에 앉은,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간다는 얼굴이 동그스럼하고 류달리 정채 도는 까만 눈을 가진 녀 군관 옆에 앉았다.

우리들은 서로 말끝을 이어 가면서 서로 헤여진 후에 대하여, 그리고 가렬처절한 전쟁의 나날에 대하여 심금을 털어 놓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긴 단발머리 녀 군관은 경탄과 의혹에 찬 눈으로 우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추운 겨울 설령에서 쪽잠을 자며 싸운 이야기, 긴 장마 통에 후방 공급이 일시 어려웠을 때 강냉이 한 이삭을 셋이서 나누어 먹으며 싸운 이야기 등은 그 때에 반토굴 집이나마 따뜻한 구들목에서 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웠을런지도 모를 이 젊은 녀군관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모양이였다.

이 날 병철이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의 옛

중대장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내가 자네와 헤여져서 정찰 중대에 배치되여 간 게 아마 51 년도 봄이였었지?》하고 그는 중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중대를 가면서 사단에서도 이름 난 우리 정찰 중대장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했었네…과연 어떤 사람일가 하고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중 학생이던 나는 영웅이라면 그저 몸체도 우람하고 한 번 눈을 뚝 부릅뜨면 삼척 동자도 울음을 그치는 말하자면 남들과 다른 비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며 중대부에 찾아 가니 아무도 없더군, 빈 포탄 상자 두 개를 겹쳐 놓고 양키놈들의 위장포를 상'보마냥 씌운 책상이 구석에 있을 뿐…

그런데 무심'결에 그 책상 우에 눈'길을 주던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네. 글쎄 이런 별일이 어디 있겠나? 책상 우에는 손칼, 작은 톱 등이 있는데 그 옆에 글쎄 나무로 깎은 토끼가 있었단 말일세. 바로 그 호랑이 같다던 중대장의 책상 우에 말일세…

방금 어느 우거진 풀숲에라도 깡충하고 뛰여 갈듯한 초약의 태세, 빨죽한 두 귀, 올롱한 두 눈…정말이지 석굴암의 불상을 조각한 그 조각가에게 비해서도 손색 없을 정도의 멋진 솜씨였었네. 나는 저도 모르는 새 그 놀이'감 토끼를 들고 보며 빙그레 웃었네…

자. 적들은 코앞에 있지, 복잡한 정찰 임무는 련달아 제기되지, 이런 복새판에 중대장의 책상 우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네…

이 때 누군가가 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 오더군. 나는 당황하여 얼른 놀이'감을 제 자리에 놓았네.

들어 온 사람들은 중키에 갸름한 얼굴을 한 30 안팎의 퍼그나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였네. 물'기 어린 얼굴과 꽁무니에 찬 수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세수를 하고 들어 오는 모양이였어… 그런데 그 얌전하게 생긴 이가 글쎄 그 이름 난 중대장일 줄이야…

그 때 나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기의 기대에 어긋날 때 사람들이 항용 느끼는 그런 허전한 생각까지 들었네. 도대체 사람을 만나자 벙글벙글 웃기부터 하는 이 얌전한 얼굴을 한 사람이 어디에 그런 용맹성이 숨어 있을가?

중대장 동문 나에게 사단에서 몇 시에 떠났느냐고 묻기에 《여섯시에 떠났습니다.》하고 대답했더니 중대 직일관을 불러 《이 동무에게 아침 식사를 시킨 후 곧 취침시키시오. 12시 5분에 다시 데려 오시오.》하고 간단 명료하게 지시를 주더군.

난 중대 직일관의 뒤를 따라 야전 식당으로 가면서 왜 중대장 동무는 다짜고짜로 식사를 하고 자기부터 하라느냐고 물었지. 흔히 지휘관들이란 새로 배치되여 온 군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고향이며 취미, 일가 친척, 학력 등을 캐여 묻는 게 보통이 아닌가? 직일관 동무는 웃으면서 《동무는 사단 지휘부를 여섯시에 떠났다지? 그것은 아직 아침 식사 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눈에 피'발이 선 것은 간 밤에 자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선 먹고 자야 할 게 아닌가!》라고 하더군.…

나는 중대장 동무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역시 이름 난 정찰 지휘관 답구나!)하고 생각하였지. 사실 나는 배치장을 받을 때 중대가 인차 이동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첫 새벽에 사단을 떠났던 것이네.

나는 다시 내가 아까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던 바를 직일관에게 물어 보았지.

<…저 중대장 동무의 책상 우에 있는 놀이'감은 뭘하려는 건가요?>

<하하 그것 말인가! 중대장 동무에게는 고향에 네 살 난 사내 애가 있는데 그 애의 생일날이 오래지 않다더군, 그애에게 선물로 보내려는 거네.>

<뭐, 어린애에게요?>

하고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네, 역시 별난 사람이구나… 저런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가…하고 생각하였지…》

병철이는 일단 말허리를 끊었다. 그리고는 담배 연기로 가락지를 만들어 내뿜으며 멀리 차창 밖으로 흘러 가는 련봉들을 바라 보았다. 아마도 끊어진 회상의 매듭들을 잇는 모양이리라! 잠시 후 그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는 부대의 명령에 의해 설화봉 기슭으로 이동하게 되였네, 그 맞은 켠 멀리에는 원쑤들이 둥지 튼 적원봉이란 좀 까다로운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네.

이 때 쯤 되여서는 나도 중대장 동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였네.

중대장 동문 본래 단천 태생인데 군대에 나오기 전까지는 고중에서 력사를 가르쳤다더군. 그의 안해 역시 같은 학교에서 화학 교원을 하였대. 집에는 네 살 난 정남이란 사내 애와 두 살 잡이 정숙이란 처녀애가 있구…말하자면 퍼그나 화목하고 리상적인 가정이였지. 우리들 모두와 생활이 그러 했듯이 미제 원쑤놈들은 그의 행복한 생활 역시 무참히 짓밟았단 말이야…그는 무척 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였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전투 환경에서 자기 생일은 번번히 잊으면서도 아이들 생일만은 잊지 않고 꼭꼭 무슨 선물을 보내군 했다네. 내가 전번에 본 토끼도 바로 그런 게였단 말일세.

<우리 정남이 놈이 좀 세찬 놈이니까 앞으로 지질 탐사대원을 만들고 정숙이 넘은 춤추는 배우를 만들어야 하겠단 말이요. 하하…>

그는 전사들 속에서 자주 이런 롱을 하였다는군. 정말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얼굴이 어쩌나 부드러운 빛을 띠는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선망할 정도였네.

군대에 나온 후에도 그의 배낭 속에는 언제나 두툼한 력사책이 들어 있었구 또 열성적인 민간 전설의 수집가여서 화선 천리 이르는 곳마다에서 구수한 전설들을 얻어 두었다가는 전사들에게 곧잘 그것을 이야기하였대. 정말 별난 사람이였다니까…

우리가 설화봉 기슭에 도착한 날 저녁에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네. 딸기 즙을 뿌려 놓은듯한 진한 저녁 노을이 설화봉 상공을 물들였고 그의 암록색 기슭으로는 청비로드를 펼친 것 같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 옆에서 취사원 아바이가 끓이는 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 왔지. 분대장 동무가 부는 청아한 피리 소리에 맞추어 동무들은 나지막하니 노래를 따라 불렀네.

이제 저 불타는 노을이 스러지고 땅'거미가 스며 들면 적후로 들어 가야 할 동무들이지만 모두 태연한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데. 하기사 정찰병들에게 있어서 적후 습격 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겠나?

오직 첫 정찰에 참가하는 나의 기분만은 심상치 않았네. 솔직히 말해서 겁도 좀 나더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새 나의 얼굴'빛을 살핀 중대장 동무가 나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네.

<병철 동무! 왜 겁이 나오. 념려마오. 용감한 사람은 탄알도 피한단 말이야…>

나는 그만 자기의 약한 마음을 드러낸게 부끄러워 슬그머니 얼굴을 붉혔네.

<자 노래를 부르자구. 그러면 힘이 부쩍부쩍 솟지>하고 그는 역시 자기가 먼저 노래를 부르더군.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여 따라 불렀네.

전호 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 가라…
조국 땅을 보위하여
총을 멘지 삼 년 석 달
………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집으로 돌아 가면
사랑하는 부모 처자 두 팔로서 안기리
……



노래는 조용히 메아리 치며 멀리멀리 울려 퍼졌네. 그러자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노래가 고향에까지 울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 그리고 조석으로 학교에 오가던 논'두렁 길이며 버들 개지가 하얗게 꽃핀 방천의 버들 숲이며가 어쩌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던지…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가 불쑥불쑥 치솟데.

그런데 한참 후 중대장 동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

<동무들! 저 적원봉 전설을 아나?>

<모릅니다.>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대답했지.

<그럼 내 그걸 이야기해 주지.>

역시 력사가다운, 그리고 열성적인 <전설수집가>다운 태도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네.

<멀지 않은 옛날 저 적원봉 기슭에 바우라는 초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옥란이라는 아름다운 안해가 있었다오. 그 얼굴이 어찌나 이쁘고 그 마음씨 어찌나 착했는지 마을의 못된 부자놈이 그 녀자를 탐냈다오.

어느날 그 부자놈이 바우를 불러다가 선심을 쓰는 척하고 말했지.

<살림도 궁색한데 돈을 줄테니 우리 집 큰아이 하구 명동땅에 가서 참대를 한짐씩 해오게.

그걸루 붓이나 채, 부채 같은 걸 만들어 팔면 벼락돈을 벌 수 있지.>

순진한 바우는 그 부자놈의 속심은 모르고 그 집 맏아들놈과 함께 명동 땅으로 떠났다오. 그런데 그가 명동의 우거진 대숲에서 그 아들놈의 칼탕을 맞고 쓰러질 줄이야 알았겠소.

부자놈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녀자를 롱락하려고 들었지. 그러나 그 녀자는 몸을 빼여 저 적원봉에 오른 후 날마다 명동땅에 간 랑군을 기다리였다오. 꽃다운 얼굴에 이랑 깊은 주름이 패우고 머리는 파 뿌리처럼 새하얗게 되여도 남편은 돌아 오지 않았고 어느 일진 광풍 휘몰아치는 겨울날 그 녀자의 몸은 그만 화석으로 굳어져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대…그렇게 원한이 쌓이고 쌓인 봉우리라 해서 저 산을 적원봉(積怨峯)이라 부른다오.

글쎄 그 때 중대장 동무가 어찌나 그 이야길 실감 있게 하는지 우리의 눈앞에는 비 오는 날이건 눈바람 부는 날이건 적원봉 령마루에 립상처럼 서서 늙어 가는 한 녀인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오르더군. 그리고 계급 사회가 빚어 낸 사회악에 대하여 주먹을 틀어 쥐였고 또 그 파란 많은 바우와 옥란이의 운명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네 조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지난날들이 저절로 생각키우는 것이 아니겠나!

이 때 지휘부에 갔던 련락병이 돌아 왔는데 그는 오는 길에 야전 우편소에 들려 한 묶음의 편지를 가지고 왔네. 화선에서 고향 냄새 물쿨 나는 편지를 받는 기쁨을 자네도 아마 잊지 않았을테지? 저마다 환성들을 질렀네. 애인한테서 온 편지를 받은 우리 분대장은 꽃봉투 속에서 나온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금시에 홍시로 되였고 담배를 줄창 피운다고 <너끄젠 아바이>로 불리우는 분대의 좌상은 <홍 우리 집 돼지가 열두 마리의 재끼를 낳았다는 군>하며 중대원들을 웃겼네.

중대장 동무는 그 옆에 있는 소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 보는데 웬 일인지 그 낯빛이 심상치 않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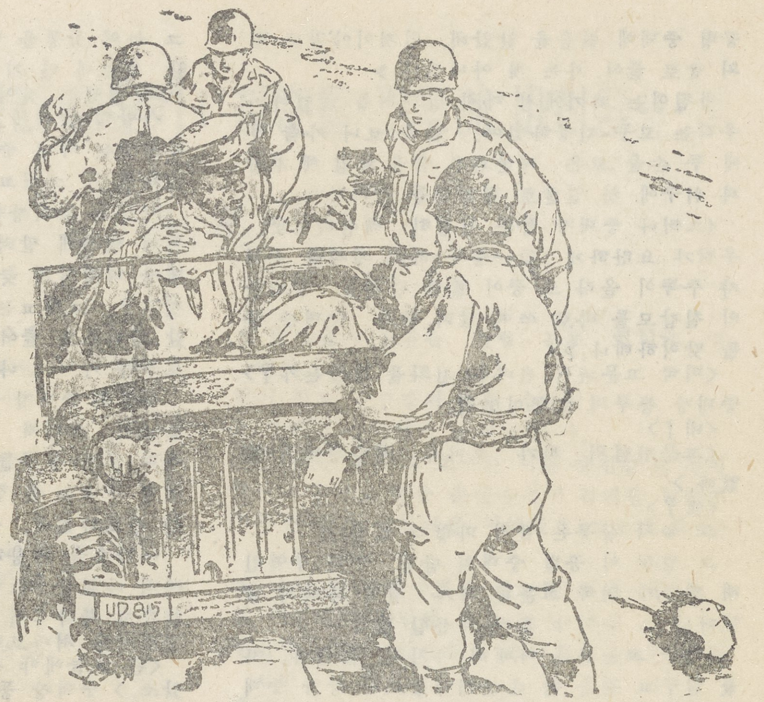


<중대장 동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답니까?>하고 분대장 동무가 물었더니 그는 <응…>하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어쩐지 어색하게 들리데. 그로부터 반 시간 후 우리 분대는 어스름을 리용하여 <국군>으로 가장하고 중대장 동무의 인솔 하에 적후로 향했네.》

기차는 굴 속으로 들어 갔다. 차 바퀴가 레루의 짬재를 넘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확성기에서는 옥류교 원무곡이 경쾌하게 흘러 나왔다.

기차가 굴을 빠져 나오자 그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날 밤 적후에 들어 간 우리는 이튿날 짙은 안개 속을 뚫으며 버젓이 대렬을 지어 큰 길로 걸었네. 괴뢰군 대위로 차림한 중대장 동무가 앞장에 서고…적들의 <제므스>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송 전선 쪽으로 달려 가더군. 한참 걸어 가노라니 길 섶에 밑뿌리 채 넘어진 포플라나무 우로 굵직한 전화선이 지나 간 것이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곳에서 휴식하는 척 하면서 놈들의 전화를 도청하기로 하였네. 우리가 방금 전화 도청기를 전화선에 련결시키려는데 맞은켠에서 한 개 소대 가량의 <국군>놈들이 오더군. 난 정말 속이 콩알만해지는 것 같더군.



중대장 동물 쳐다보았지. 중대장 동문 그저 태연하게 담배갑에서 <화랑> 한 가치를 꺼내서 갑 우에 툭툭 그루를 박아 천천히 입에 물더군. 그러자 분대장 동무가 제꺽 라이타를 켜서 가져 가데나… 그 모습이 정말 으젓하더란 말이야. 대렬 앞에서 걸어 오던 소대장 녀석이 중대장 동무에게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하데. 중대장 동문 시뜩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

우리는 이 날 미국 고문관 맥코노이 대위가 박《중령》과 함께 대명산 공병 중대로 검열하러 가니 준비를 잘 하라는 사단 작전 처장의 전화를 도청하였네. 중대장 동무는 지도를 한참 보고 나서<가기오> 한 마디 던지고는 다시 성큼성큼 걸어 가더군.

한참 가니 깎아지른듯한 절벽 새로 길은 빠졌네. 중대장 동무는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보더니 큼직한 바위'돌을 길 우에 굴려 놓으라구 하더군. 우리는 순식간에 그 일을 하여 놓았지. 그리고는 적당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네.

잠시 후 찦차 한 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달려 오더니 그 바위'돌 앞에서 급정거하더군. 차에서 운전수놈이 훌쩍 뛰여 내려서 두덜거리며 바위를 굴리노라고 안'간힘을 쓰더군. 아마도 절벽에서 굴러 내린 줄만 안 모양이였어. 차의 뒤'좌석에는 고문관 녀석과 박《중령》이 의자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여 앉고… 순간 중대장과 분대장, 그리고 날래기로 이름난 염 규만이란 전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 고문관과 박《중령》놈을 묶었네…다른 동무들은 바위'돌을 치우던 운전수놈을 묶고…

우리가 찦차에 달려 갔을 때 중대장 동무는 벌써《중령》놈의 옷을 갈아 입더군. 그러면서 분대장 동무에게 무엇인가 지시한 후 <4시 30분 잊지 마오>하고 말하데… 그리고 날더러 그 찦차에 오르라고 하더니 멥시 있게 차를 몰데나. 뒤돌아 보니 동무들은 포로를 앞세우고 앞골짜기로 달려 들어 가더군.

중대장 동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 그러니 나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나? 그저 옆에서 그를 보면서 도대체 이 분의 그 어디에 이런 용감성이 숨어 있을가?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였지. 정말 이상하게만 생각하였네…한참 가다가 그는 길 우에 우뚝 솟은 봉우리를 가리키며 <이게 바로 적원봉이야! 부자놈한테 억울하게 죽은 옥란일 생각하라구.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질 게야>하고 빙그레 웃더군. 그때는 벌써 나도 겁이 싹 달아 나고 중대장 동무에 대한 바위 같은 믿음만이 생기데.

갈림'길에 나서자 중대장 동무는 차에서 훌쩍 뛰여 내려 개천 쪽으로 간 전화선을 끊었네, 그리고는 다시 차를 몰았네. 한참 달리니 산'기슭에 몇 개의 천막이 나타나더군. 자루가 긴 공병삽, 주변에 널려져 있는 가시철선들, 철조망 말뚝들… 나는 그제서야 대명산

공병 중대에 왔음을 알았네. 이것이야말로 범의 굴로 들어 가는 게 아니겠나.》

병철이는 여기에서 다시 말허리를 끊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였다. 옆을 보니 가슴 우에 두 손을 모은 녀군관은 숨을 죽인 채 경탄과 위구에 찬 얼굴로 병철이를 쳐다본다.

《그러나 중대장 동문 여전히 태연하더군. 우리가 요란하게 <빵—빵—>하고 정적을 울리자 주독이 올라 코'등이 빨간 땅딸보 장교놈이 철갑모를 바로 쓰며 달려 나와 중대장 동무를 맞이하네나.》

<미국 고문관이 온다는 전화를 받았는가?> 중대장 동무의 호통이였지.

<네!>

<고문관님의 차가 오다가 사발령에서 굴었다.>

<옛?>

그 놈의 상통은 금시 파랗게 질렸네.

그 길은 이 공병 중대의 담당 수리 구역인데 게다가 미국 고문관 차가 길이 나빠서 굴었다니 그 놈이야 혼비 백산할 밖에…

<미군 고문관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차를 일구고 길을 좀 손질해야겠으니 당장 중대를 동원하여 그 곳으로 나오란 말이야.>

그 소리에 좀 화색이 돈 땅딸보 녀석은 옆구리에 찬 권총을 대고 쏘면서 <비상 소집이다>하고 고으더군. 그러자 놈들의 병영은 터쳐 놓은 벌통지처럼 와글거리데. <무슨 놈의 동작이 이리 굼떠!>하고 중대장 동문 연방 호통질이지. 놈들이 다 정렬됐을 때 중대장 동무는 그 땅딸보 녀석에게 어느 소대장에게 중대를 책임지워 현지로 오도록 하고 중대장은 공병 략도를 가지고 현장에 먼저 나가서 그 일이 끝나면 전연에 나가 지뢰 차단물 설비 정형을 돌아 보자고 하더군.

소대장에게 임무를 준 땅딸보놈이 뒤'좌석에 올라 앉자 중대장 동무는 차'머리를 돌렸지. 그런데 중대를 벗어 난 지 얼마 안 되였었네. 이마에 솟은 땀을 훔치려고 나는 그만 모자를 벗었지. 자신의 머리가 정찰 구분대에 온지 얼마 안 되여 아직 길지 못하다는 사정은 까맣게 잊고…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 그만 큰 실수를 하였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요?》

옆의 녀군관은 그 까만 눈이 휘둥그래지며 다급히 물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땅딸보놈이 우리의 정체를 알아 차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놈은 여우같이 약은 놈이여서 못 본 척 외면하면서 권총을 몰래 빼려고 했지. 그러나 어느결에 중대장 동무가 이걸 눈치 채고 뒤를 돌아 보면서 그 놈의 상통을 힘껏 갈겼지. 중대장 동무는 앞 윈드에 단 거울로 그 놈의 거동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이야.

사발령 중턱에 이르자 중대장 동무는 차를 세우고는 죽은 중대장한테서 공병 략도를 끄집어냈지. 그리고는 찦차를 굴려 놓았지.

이윽고 소대장놈이 중대를 데리고 헐떡거리며 현장에 달려 왔네. 중대장 동문 공병 소대장 녀석에게 늦게 왔다고 한바탕 호되게 꾸짖더군. 그리고는 오가는 차들도 복잡할텐데 앞 골안으로 들어 가 무기를 내려 놓고 공병 도구만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였네.

놈들은 중대장 동무가 지적해 준 곳에 무기를 놓았네. 그런데 그 주위에 사격 준비를 갖춘 우리 분대 동무들이 매복해 있었단 말이야! 결국 우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 한 개 중대를 생포하였네. 시간은 꼭 4시 30분이였네.

…야음을 리용하여 우리가 적들의 전연을 빠져 나왔을 때 중대장 동무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북극성이 활활 불타는 북쪽 하늘을 한식경이나 쳐다보데.

<난 오늘에야 정남이와 정숙이의 원쑤를 갚았소.> 중대장 동무의 괴로운 목소리였네.

<네!?그…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원쑤들의 폭격에 죽었네.>

알고 보니 그는 우리가 바로 적후로 들어 오기 직전에 고향에서 가족들의 폭사에 대한 비보를 받았는데 파도한 흥분과 충격이 정찰 행동에 지장을 줄가 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네!>

이윽고 병철이는 이야기를 그쳤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사색이 어리여 있었다. 옆을 보니 젊은 녀 군관은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자근 자근 누르고 있었다. 나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그는 무한히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나 바로 그 용감한 사람의 피'줄기 속에는 자기 가정과 고향, 그리고 온 조국 땅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를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가 쇠'물처럼 타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로하여 우리는 지난 전쟁에서 강대한 미국놈들도 때려 부셨다. 나 역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몇 차례의 전투에 참가하여 그런 영웅을 수 없이 보았다. 그런 영웅들을 더 많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만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또 하나의 영웅을 만나러 가는 나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였고 힘차게 달리는 기차도 더딘 것만 같았다.

차창 밖에서는 어느재엔가 소담한 겨울 눈이 퐁퐁 쏟아지고 있었다.

1964. 2



얼마나 좋은가! 청춘을 조국에 바침은…

안 창 만

조국이 걸어 온 승리의 행로 우에
우리는 떳떳이 제 이름을 적었다.
불비 쏟아지던 1,211 고지에…
해주—하성!
송남의 막장!
탕림의 언제에…

잊지 못 하겠노라 손 잡고 놓지 않는
헬싱키의 천대 받는 벽돌공의 가슴에도,
경기장이 떠날듯 환호를 보내는
쟈카르타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도
자랑찬 우리의 이름을 적었다.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
우리는 조선 청년이다!

저절로 찾아 온 영예 아니다.
우리는 조선 청년!
이 땅의 웃음과 노래로 되는 참다운 젊음.
벗들의 가슴엔 용기와 투쟁의 불씨로 되고
원쑤들의 가슴팍엔 무서운 비수와 같음은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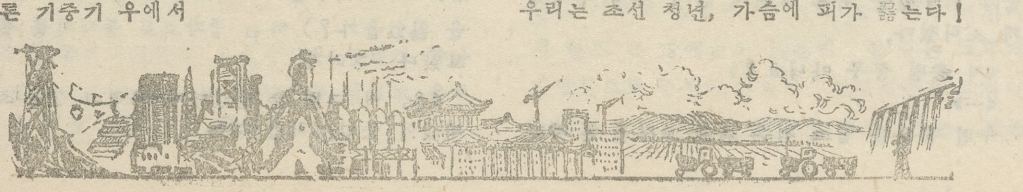
장백의 밀림 속 눈보라를 헤치며
이 땅의 태양을 마련하던 투사들의 심장
아, 그 홰'불 같이 타는 심장을 이어 받은 우리
 의 가슴에
영광찬 날에로 부르시는 수령의 말씀 새긴 우
 리의 가슴에
피가 끓는다. 청춘의 붉은 피가 끓는다.
끓는 피 헛되이 말자 동무들이여!
다시 한 번 대고조의 노래 높이
오랜 날을 두고 바라던 숙망의 나래를 펼치자!

수도의 북성'벌에 또 하나 거대한 힘을 일으켜
 세우는
75 톤 기중기 우에서
새 돌격을 다짐하는 민청 분조 회의가 열
 린다.
전기 철도 건설장의 철탑 우에서
옷'자락을 눈바람에 날리며 웃자.
가던 길을 멈추고 호수를 이룬 장진강 물'결이
굽이굽이 수로 속을 용솟음치며 전기를 일구며
우리를 따라 아름다운 미래에로 흐르게 하자!

그 어느 깊은 막장에서 끌끌한 젊은이들이
새 채탄장의 동발에 못을 박을 때
무산과 화평의 암석들이 장수같은 소리를 지
 르며
금은보화를 꽃보라처럼 뿌릴 때
용해공들은 출강 시간을 다우치고
직포공 처녀들이 봄 노래 부르며
고운 천을 강물처럼 끊임없이 짜 내리라.

온 공장의 기계들이 저 혼자 돌게 하리라고
자동화의 꿈을 안고 밤을 지새는
어느 젊은 기사가 사는 창'가에 불'빛이 탈 때
알뜰한 가구가 새로 지은 아빠트에 놓일 때
전기 가마로 밥 짓는 어머니들의 얼굴에 주름
 이 펴이고
갖가지 재롱스런 완구를 들고 아이들이 방긋
 웃을 때
조국의 방선에선 인민군 용사들이
이 땅을 철벽으로 지켜 섰다.

얼마나 좋은가! 청춘을 조국에 바침은
얼마나 눈부신가! 우리의 리상, 우리의 로동.
자, 청년들이여, 온 몸에 부쩍 기운을 돋구자
또다시 대고조를 일으키며
또다시 세상을 경탄 속에 잠그며
이 땅에 영광과 보람을 활짝 펼치자
혁명의 세찬 폭풍 속에 태여난
우리는 조선 청년, 가슴에 피가 끓는다!





현지 보도

또다시 돌격전에

—철도 전기화 공사장을 찾아서—

함박눈이 나리는 밤이였다. 두 줄기 뻗은 레루만 없었더면 우리는 정적이 깃든 눈 덮인 벌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역에서 한 2 키로 메터 가량 가면 철'길이 구부러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7만산>전투장이지요.》

우리는 낮에 성 지휘부 민청 위원회의 한 동무가 일러 주던 말을 생각하면서 갈림'길에 잡아 들어 새로 놓은 레루를 따라 갔다. 거기서 얼마간 더 들어 가느라니 갑자기 쏴—하는 물 소리가 들려 왔다.

레루는 림시로 놓은 좁다란 목조 가교를 지나 갔는데 밤이여서 그런지 강'바닥까지 수십길이나 실히 되는 상 싶었다. 강 건너 편은 높지 않은 야산이 소잔등처럼 가로 누워 있다. 조심조심 발을 옮겨 디디며 우리가 막 가교를 건넜을 때 난데 없이 산 우에서 전등이 켜졌다. 그 때문에 쥐죽은듯 하던 들판이 생기를 얻었다.

늙은 밤나무 가지에 달아 놓은 촉수 높은 전등이 산'등성이를 뭉텅 짜르고 깊숙하게 파들어 간 굴착장을 환히 드러나 보이게 했다.

(저기가 공사장인게로군!)

우리는 그 불'빛을 좇아 등성이를 톺아 올랐다. 이 때였다. 그늘진 저쪽 굽인돌이에서 누군가 껑충껑충 뛰여 오면서 숨이 차서 우리에게 소리쳤다.

《거 종범 동무 아니요?》

《…》

누런 솜옷을 입고 검은 겨울 모자를 쓴 사람이 다가 와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나서

《아니였군,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더니 혼자 소리처럼

《그런데 이 동무들이 어델 갔을가?》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그가 공사에 동원된 동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그는

《글쎄 금방 눈을 좀 붙인 사이에 또 <말썽'군>들이 어데로 사라졌군요!》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노기를 띠고 있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게군.)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와 함께 전등이 켜진 곳으로 다가 갔다. 공사장에 가까이 가니 우무러든 그 곳에서 7~8 명의 동무들이 제법 코'노래까지 불러 가며 곡괭이를 휘둘러 대고 있었다.

웬 일인지 우리의 코허리가 시렸다. 우리는 《<7만산>공사는 4 대대 (청철 관리국) 동무들이 계획 외에 자기들의 설계와 자체의 로력으로 맡아 나선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서 천이선<철도 전기화 속도 청년 돌격대>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일러 주던 말이 생각 났다. 우리는(그런데 저 동무는 어떤<말썽'군>을 잃었을가?) 하는 생각으로 동행자를 돌아 보았다. 그러자

《음, 내 그럴 줄 알았다니…》하고 신음 소리 비슷이 중얼거리던 그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인가?》하고 두 길이나 되는 곳을 껑충 뛰여 내리면서 벽력 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와 함께 불이 일게 곡괭이를 휘두르던 손들이 일시에 멈춰졌다.

《차렷! 돌격대장 동무…》

앞에 선 한 동무가 여기까지 보고하고는 말문이 막혀 버렸다. 그는 돌격대장의 기세에 눌린듯 말끝을 우물우물 사리고 말았다.

《먼저 선동한 동무 이러 나섯!》

그러나 누구도 선뜻 안 나섰다. 간고한 전투장에도 자진하여 나선 그들이건만 이 때만은 용기가 없는 모양이였다.

마침내 다부지게 생긴 한 청년이 한 걸음 나서며 침묵을 깨뜨렸다.

《한 가지 의견이 있수다! 돌격대장 동무는 늘 <해주—하성>, <지하리—평산>때 <도적 작업>하던 걸 자랑삼아 이야기하군 하시지 않았나요. 그 때마다 대장 동무는 <해주—하성>이나 <평양 속도>는 공산주의로 가는 1 단계의 속도에 불과하며 <철도 전기화>의 단계에선 더 높은 <철도 전기화 속도>가 창조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철도 전기화 속도 청년 돌격대>의 체면 값이나 해야지요.》

이 때까지 서슬이 등등하던 돌격대장이 고개를 외로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쉬였하라구! 제길, 종범 동무는 규률 위반을 말려야 할 분대장이 아닌가?》

《사실이야 내 잘못도 아니지요! 오늘 밤은 눈이 오니 누구도 공사장에 접근 못 한다는 중대장 동무의 명령을 받고 작업이 끝난 다음 아예 전등 스위치까지 내 손으로 떼 놓고 숙영차로 갔습니다. 그 쯤 해 놨으니 나도 마음 놓고 눈을 좀 붙였었지요. 그러다 눈을 떠보니 잠'자리가 비였지요. 부랴부랴 찾아 나온 것이…저 꼬마 정한이랑 하는 소리가 이건 민청원들이 민청 5 차 대회에 선물할 몫이라는 거애요. 일이 그렇게 된 바에야 할 수 없이 나도 <융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얼른 남보기 전에 120%만 해 놓고 들어 가자고 했지요.》

청년 돌격대원들의 옥신각신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들은 다시 활기를 띠였고 우리를 우등'불'가로 맞아 주었다.

눈 내리는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들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이름 없던 《7만산》우에서는 용솟음치는 애국의 열정을 누를길 없어 활활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였다. 늙은 두 그루 밤나무에 걸린 전등'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불사신> 그 대로를 방불케 하였다.

공사장 여기저기에는 민청 5 차 대회를 맞으면서 청년들을 정치적 및 로력적 앙양에로 부르는 커다란 구호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공사장을 눈주어 바라 보면서

《사실 오늘 밤 <규률 위반>의 책임은 돌격대장 동무에게 있군요.》하고 말했다. 이에 그는 빙그레 웃고 나서

《아니지요. 나는 옛'이야기를 이따금씩 했을뿐인걸요…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기차를 두고도 로자 몇 푼 없어서 한양 천리'길을 짚신을 신고 발이 부르트며 걸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40 년 전 포삼 나루터를 떠난 한 척의 배는 그 대로 조선 혁명의 불씨가 되여 광활한 동북땅에서 왜적을 족쳤고 1,211 고지에서 미제를 꺼꾸러뜨리고 오늘은 또 이 땅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니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의 락원에서 펄펄이 짜낸 비단이며 비료며 기계들을 무드기 싣고 우리의 조상들이 발이 부르트며 한양 천리를 가던 이 길을 전기 기관차로 달릴 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길은 조국 통일과 공산주의의 미래에 닿아 있습니다. 그 날을 환히 내다 보는 우리 돌격대원들이 어찌 밤'잠인들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적 작업>도 하는게지요. 허허…》

이렇게 허두를 뗀 그는 청년 건설자들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철도 전기화 공사에 자원하여 나선 이들 4 대대는 신의주—남시 구간에 1 등급의 로반을 닦을 임무를 맡고 달려 왔다. 그리하여 일에 달라 붙자고 보니 철'길은 그들이 담당한 여기 내중—룡주 구간에 와서 심한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이 계선에서 별로 큰 장애물도 없는데 철'길은 그렇게 기형적으로 구부러 들었다. 전투원들은 그것이 일제가 남긴 악독한 략탈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철도가 생길 그 때는 일제와 결탁한 청부업자놈들이 건설비는 제 배 속에 처넣고 철도는 아무렇게나 놓았다. 거기에 세력있는 지주는 제 땅으로 철도가 지나 가는 것을 방해하군 하였다. 그 통에 철'길에까지도 지주로운 사회의 흔적만이 끼치게 되였던 것이다.

이제 이 《7만산》만 점령하면 구부러진 철'길을 쭉 펴고 전기 철도를 놓게 된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붉은 전사들이 어찌 이 흔적을 남겨 놓으랴!

《조국의 만년 대계를 위해서 <7만산>이 아니라 <7천만산> 이라도 헐어 내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고 나섰다.

《7만산》 정복의 첫 전투를 앞둔날 고지우에서 우등'불 모임이 있었다.

이 때 그 자리에 어머니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앞세우고 그들 앞에 나섰다.

《이 곳은 이 애 정한이 아버지와 우리 식구 여덟이 미제에게 무참히 학살된 자리라우. 미국놈은 성한 나무 한 대 없게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려 했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황금 낟알을 가꾸었네. 지금 임자네들이 여기에 전기 철도를 놓는다니 내 마음은 원수를 갚는 거나 다름 없네. 그래 나도 이 애를 임자네들 돌격대에 넣으려네 어서 받아 주게!》

정한이는 이들 돌격대에 꼬마 돌격대원으로 입대하였다.

가뜩이나 속에서 불이 일던 전투원들은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로 하여 더욱더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도 경쟁을 무읍시다!》

《우리도!》

《우리들도요!》

그 자리에 찾아 왔던 락원의 선반공들도 반곡 협동 농장 천리마 제 1 작업반원들도 내중련곡 중학교의 어린 소년단원들도 손을 내여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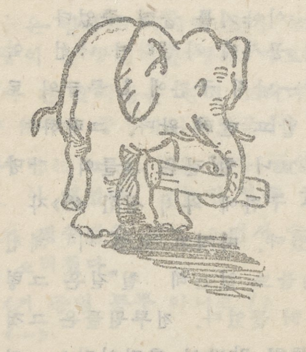
이 밤 《7만산》 우의 돌격대원들은 당과 수령께 드리는 맹세문을 그 대로 심장의 붉은 피로 새겨 넣었던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년 5.1절까지 평양—신의주 간을 전기 기관차가 달리도록 《7만산》을 점령하겠다고,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라는 당의 부름 따라 《철도 전기화 속도》를 창조하겠다고.

다음날부터 《7만산》에서는 그야말로 맹렬한 돌격전이 벌어졌다. 중대 민청 위원장 박 학일 동무와 속보원 최 동섭 동무는 소차를 개조하여 버력 운반에 씀으로써 놀라운 능률을 내였다. 그들의 작업 능률은 690%, 1,400%로 날개 돋혀 올라 갔다. 대대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해 가교를 놓아야 할 때도 얼음물에 뛰여 들어 7 메터 높이에 길이 13 메터나 되는 다리를 하루 사이에 놓은 것도 그들 돌격대원들이였다…

그러니 지금 《7만산》 정복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 선 그들이 어찌 잠시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아프리카의 상 아



기후가 무덥고 산림이 무성한 아프리카에는 몸'집이 크고 이'발이 큰 야생 코끼리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러한 코끼리들은 이리저리 돌아 다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공동 묘지》에 몰아 와서 죽는다. 그러므로 《공동 묘지》에는 코끼리의 뼈와 상아가 많이 쌓여 있다.

이것을 알아 차린 식민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아프리카에서 황금은 물론 이러한 《상아의 무덤》을 찾는 데 미쳐 날뛰였다. 그들은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상아를 채집케하고 야생 코끼리를 사냥케 하였는데 야생 코끼리를 잡으려면 수명의 생명을 바쳐야 하였다.

19 세기 80 년대에 벨기 국왕의 추구 스탄리는 《아프리카 밀림에서》라는 자기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 키로 그람의 상아는 남자나 녀자 혹은 어린애 한 명의 생명과 같으며 5 키로 그람의 상아를 위해서는 집 한 채를, 20 키로 그람의 상아를 위해서는 한 개 주를 다 태워 버려야 한다…》

15 세기부터 서아프리카의 해안 일대는 서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이 상아와 노예를 매매하는 시장으로 전변되였다. 이 곳에서 그들은 서구라파 시장으로 상아를 싣고 갔다. 지금 구라파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아의 95%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략탈해 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상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생명을 바쳤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민들 속에는 《한 개의 상아는 열 사람의 생명과 바꾼다》는 속담이 있다.

× ×

아직도 희고므레한 새벽이였다. 벌써 숙영차에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문득 벽에 걸린 《전투 속보》 철에 눈이 미쳤다. 몇 장 넘기자

《전국의 시선이 여기 위대한 혁명적 전투의 마당으로 쏠리고 있다》 라고 쓴 구절이 눈에 띄였다. 거기에는 먼 두만강역으로부터 원산, 청진, 혜산에 주소를 둔 지원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옮겨 보자.

…어느 날 청진 보선구 신포리 락석 감시원 김 한표 동무는 자기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좀 갔다 와야겠소.》

《아니 어델요》

《어디겠소. 철도 전기화 공사장 말이지, 떠나간 동무들이 궁금해서…》

《어쩌면 내가 그걸 생각 못 했을가요.》

《저 우리가 기른 돼지를 가져 갈 수 없을가?》

《돼지를요?!》

그는 밤'중으로 63 키로 그람이나 되는 돼지가 들어 갈 궤짝을 하나 짰다.

《락석 감시를 부탁하오. 내가 없으니 당신이 일을 곱이나 하게 되였소. 추운 때니 더 주의해 주오.》

《아니예요, 그들에 비기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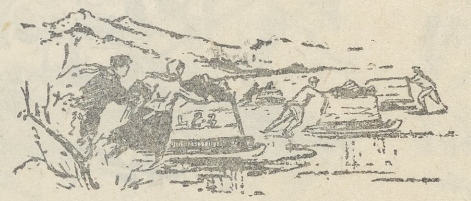
모범 락석 감시원 김 한표 동무가 돼지 한 마리를 몰고 공사장에 나타나 혁신적 성과를 올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밖에도 청진에서 65 세 난 김 현직 로인과 그의 딸 김 옥순 동무가 번갈아 와서 돌격대에서 일한 이야기, 원산 경제 대학의 차 진민 학생이 방학 간에 찾아 온 이야기, 교통성 예술 극장 배우들이 설음식을 가지고 돌격대원들을 찾아 와 그들과 같이 설명절을 지내고 첫 삽을 뜨고야 갔다는 이야기, 내각 지질 총국 함흥 물리 탐사단 제 4 초급 민청 단체 붉은 민청원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이 곳 전투장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도 남는다…

우리는 그 지원자들의 얼굴을 그려 보며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안고 공사장을 떠났다.

본사 기자 한 현준

새로운 궤도 우에서



—신천군 백석 협동 농장 제 9 초급 민청 단체에서—

《사소한 것》에서 찾은 교훈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쟁취한지 1년이 넘는 지난 해 여름이였다. 하루 일을 마친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김 학렬 동무는 흐뭇한 마음으로 논판을 돌아 보고 있었다. 벌써 여섯번째 김매기도 거의 끝나 가는 논에서는 탐스럽게 아지를 친 푸른 벼 포기들이 물'결치고 있었다. 논'두렁 길을 따라 돌아 오던 학렬은 그만 뜻 밖의 광경에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제초기가 두 틀이나 흙이 묻은 채 논'두렁에 있지 않는가! 거기에는 민청원 윤 동무의 것도 있었다. 이 두 틀의 제초기는 학렬 동무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집단에서 공동 재산에 대한 이와 같은 주인답지 못 한 태도가 허용될 수 있겠는가!

결코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없다. 당에서는 지금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은데 만족하고 모든 일이 그저 잘 되려니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사실 아직도 작업반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필 때 부족점이 적지 않다. 극히 일부 농장원들 속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재거름을 받아서는 자기 터밭에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사업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가 아니라 깊이 파고 들어 심화시켜야 하겠다.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는 사람들의 머리 구석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혁명을 강하게 전개하여야 하겠다.…

학렬은 얼굴을 붉혀 가며 자신의 사업을 검토하고 반성하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어귀 밭머리에서는 초급 민청 단체 총회가 열렸다. 지난날 회의들에서 취급되던 안건들과는 달리 이 날 회의에서 취급된 안건은 《<지름'길>은 왜 생겼는가?》였다.

민청원들이 빙—둘러 앉은 밭머리에서는 저쪽 밭 한가운데로 일부 농장원들이 밟고 다녀 생긴 《지름'길》이 빤히 보였다. 학렬이는 한복판에 서서 보고하였다.

《…동무들, 저 <지름'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 중에는 한 20 메터가 돌기 싫다고 밭을 밟고 다니면서도 하등의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 하는 그런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무들은 만일 자기네 터밭이였다면 이렇게 밟고 다니지 않을 겝니다.

지난날 항일 빨찌산 시기 한 나어린 공청원은 원쑤들에게 붙잡혀 놈들의 교수대에 올랐을 때에도 <나는 비록 오늘 죽지만 인민들의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싸우다 죽기에 웃으며 죽는다.> 하고 분연히 웨쳤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얻어진 오늘의 락원에 살면서 나라의 재산, 공동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서야 어찌 천리마 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열을 띤 부르짖음은 모여 앉은 민청원들의 가슴을 쳤다.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런 결함을 범한 동무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의 교양 사업에도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최근 며칠 밤 잠 들지 못 하고 모대기였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말하였을 때 저쪽 구석에서 한 민청원이 불쑥 일어 섰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머뭇머뭇하다가 말했다.

《민청 위원장 동무, 사실 지난날 나도 뻔히 알면서도 그 <지름'길>로 두 번인가 다닌 일이 있지요.》

《나도 더러 다녔지요…》

이렇게 자기들의 결함을 솔직하게 량심적으로 말하는 민청원도 있었다. 회의는 일부 동무들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고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의 학교로 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민청원들의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남몰래 무너진 논'두렁을 손질해 놓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마을 곳곳에 밤을 새우며 꽃밭을 만들어 놓는 동무들도 있었다. 민청 단체는 다시 그런 동무들의 모범적 사실을 널리 선전하여 일반화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논판에서 돌아 오던 학렬은 누구인가 수로'뚝에 걸터 앉아 무엇을 열심히 닦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다가 가 보니 민청원 윤 동무가 제초기를 물에 씻고 있는 것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흙 묻은 제초기를 그냥 논'두렁에 던진 채 집으로 돌아 가던 그가 아닌가! 그의 사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그가 다시 걸음을 옮겨 마을 어구 밭에 이르니 언젠가 지름'길이 났던 곳에서 새로 심은 콩이 파릇파릇 움트고 있었다. 그 새 싹은 마치도 낡은 사상 잔재의 패배와 새로운 사상의 승리를 힘차게 고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모든 사업을 깊이 파고 들고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만 한다면 큰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학렬 동무가 《사소한 일》에서 찾은 교훈이였다.

아버지와 딸

민청원 리 춘자 동무의 민청 생활 문제를 두고 학렬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춘자 동무로 말하면 아직도 작업이나 민청 사업에서 주인답게 참가하지 못 하고 있다. 회의에서 어떤 문제를 토의할 때면 《내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딴 생각만 하면서 한 마디 의견도 제기하지 않는가 하면 작업반 써클을 할 때도 노래 한 번 부르지 않았다. 또한 위임된 분공 실행에서나 일상 작업에서도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였다.

춘자 동무의 이런 결함을 고쳐 주려고 개별 담화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러나 그 때 뿐이고 의연히 그의 생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 내에, 그것도 2중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에 궐기한 자기 집단 내에 아직도 이런 동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학렬은 심각한 마음의 가책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심장을 활활 불타게 해야 했고 모든 일에서 적극성을 나타내게끔 도와 주어야 하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학렬의 머리 속에는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가 삼삼히 떠올랐다.

…한방의들은 환자를 대할 때 우선 그 환자의 성격부터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 하면 환자의 성격, 체질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그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과 성격에 따라서 약재나 그 분량을 달리 해야 할 때도 있다…

한방의들도 이렇게 하거늘 우리가 어찌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겠는가!

학렬 동무는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데 나는 사실 춘자 동무에 대해서 무엇을 깊이 알고 있었던가? 춘자 동무의 병'집을 고쳐 주자면 우선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 알아야겠다.)

며칠 후 그는 춘자의 아버지가 이 마을 지



주 류 병돈의 머슴으로 온갖 천대와 학대 속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야말로 춘자 동무는 좋은 계급적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바로 이것으로 춘자 동무의 심장에 불을 지펴 주자! 학렬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느 날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내가 겪은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였다. 거기에 출연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춘자의 아버지였다. 그 자리에는 춘자도 와 있었다.

《이거 젊은이들에게 좀 쑥스러운 이야길 하나 할가? 지난날 부자'집 아이들이야 자리에 오줌을 싸는 것들이 벌써 장가를 들었지만 우리 같이 돈 없는 집 사람들이야 어디 그럴 념이나 했겠나! 나도 스물 다섯 살에야 장가라고 들었지. 그런데 바로 장가 들기 전 날 밤이였었네. 한밤'중에 지주놈은 나를 깨우더니

<이 사람, 래일 장가 드는데 좀 안 되기는 했지만 신천읍에 가서 새로 지을 집 재목을 좀 실어 오게나…>

일인즉 기가 막히긴 하지만 밥줄이 그 놈한테 달려 있는 때인지라 어찌하겠나? 왕복 60 리'길을 갔다가 새벽에야 돌아 왔지. 그런데 지주놈이 또 이런단 말일세! <이 사람 한번만 더 갔다 오게. 그래도 장가 드는데 늦지는 않을 거네.>

그 때엔 나도 정녕 맥이 풀려서 말뚝처럼 우뚝 선 채로 있었지…그러니 지주놈은 또 소릴 지르더군 <왜 그냥 섰냐? 귀가 먹었냐? 썩 갔다 오지 못 할가?>

할 수 없이 또 갔지, 돌아 오는 길에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 처가'집에서는 그래도 잔치'상이라고 차려 놓고 까맣게 기다릴 게 아니겠나? 나는 그만 속이 달아서 달구지 채를 팽개치고 땅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네…정말 오장 륙부가 녹아 나는 것만 같았네…》

춘자 아버지는 그 밖에도 가지가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춘자의 머리는 점점 수그러지였다. 그는 아버지가 지난날 머슴살이로 고생한 이야기는 더러 들었지만 이 장가 든 날에 대한 기막힌 사연만은 아버지가 아직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다.

로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마치였다.

《지금이야 시집, 장가 들어두 모두 온 마을이 도와 주고 문화 주택을 주고 비단 이부자리를 채려 놓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걸 생각하면 정말 오늘 세상에서는 모든 일에서 발 벗고 나서 뼈가 가루로 되여도 아깝지 않네!》

과연 《내가 겪은 이야기》 모임은 초급 민청 단체가 목적했던 대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임에 참가한 모든 민청원들의 계급 교양에 크게 이바지되였을 뿐만 아니라 춘자 동무 자신의 심장에도 뜨거운 불을 달아 놓았다. 그의 귀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지금은 《모든 일에서 발 벗고 나서 뼈가 가루로 되여도 아깝지 않다》던 그 말이 자꾸만 힘차게 울리였던 것이다.

이것을 눈치 챈 학렬 동무는 그와의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분공도 주고 그를 실행하도록 도와 주었다. 결과 춘자 동무의 생활에서는 점차 적극적인 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변의 공지에 역삼들을 뿌리자고 제일 선참 발기해 나서서 그를 솔선 실천한 것도 춘자 동무였으며 소낙비 세차게 쏟아지는 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저 혼자 논'고뭄을 돌아 본 것도 춘자 동무였었다.

춘자는 어느 날 작업반 써클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때의 얼굴은 무척 행복해 보였는데 그것은 춘자가 이 몇 해 어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이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대상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의 병에 알맞는 약 처방을 쓸 때 소극 분자도 적극 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

이상에서 소개한 한두 가지 실례는 학렬 동무가 여러 가지 생동한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개조하면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 놓은 한두 가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과의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의 첫 공정인 것이다.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필 때 세상에서 못 해 낼 일이란 없다. 이들은 지난해 농사를 각별히 잘 하여 작업반적으로 6.5 톤 이상의 소출을 내였고 2 중 천리마 작업반의 빛나는 영예를 쟁취하였다.

새해에도 정당 500 키로 증수 운동에 궐기하면서 민청원 조 순태 동무는 객토 작업에서 천리마 삭도를 창안하여 가장 어려운 운반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일약 1,600%의 능률을 내게 하였고 면일 도처에서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

청년들 속에서는 날로 공산주의 붉은 꽃이 만발하고 있다. 갑자기 소 관리공이 앓을 때 작업반 축사 앞을 지나다가 굴뚝에서 연기가 멎은 것을 본 류 경자 동무는 그 곳에 달려가 온 밤을 축사에서 밝히면서 소들에게 여물을 끓여 주었고 권 정숙 동무는 마을을 잘 꾸리고 일'손이 모자라는 집 일을 제 일처럼 도와 주어 《마을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서는 깊은 변혁이 일어 나고 있으며 생활은 랑만과 활기에 넘치고 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사람과의 사업을 첫 자리에 내세우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 개조 사업을 강화한 때문인 것이다.

본사 기자 김 영 길

청년생활 소사전

토막 네건

△ 만일 바다'물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금을 다 뽑아 낸다면 전체 륙지를 130 메터에 달하는 소금의 층으로 덮을 수 있다.

△ 어른의 혈관과 모세 혈관을 합한 길이는 10만 키로 메터에 달한다.

△ 남극에는 전 지구를 85 메터의 두께로 덮을 수 있을만한 얼음이 있다.

△ 10억의 원자를 이어 놓은 길이는 1 센치 메터 밖에 안 된다.

달의 온도는 몇 도나 될가

얼마 전에 쏘련 천문학자들은 무전 전파로 1 메터 깊이까지의 달의 표면층을 연구하는 데 성공하였는 바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달의 표면은 분말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잔 구멍이 많은 물질로 되였다는 것이 확증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달 표면의 온도는 밤에는 섭시 령하 150도, 낮에는 령상 115 도이며 0.5 메터 깊이의 내부 온도는 항상 령하 50도라는 것이 판명되였다고 한다.

파지

파지는 다른 제지 원료보다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원천이 풍부하다. 또한 운반하고 가공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며 실수률도 높다. 특히 파지를 사용하면 귀중한 목재를 대량 절약할 수 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한 사람이 1 년에 3 키로씩의 파지를 모은다면 약 3만 톤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공화국의 전체 학생들에게 200 권씩 줄 수 있는 5억 3백만 권의 노트를 생산할 수 있다.

이만한 종이를 생산하자면 약 27만 립방의 목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재로는 1188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다.

이처럼 파지는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므로 파지 수집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의 호상 관계의 규범

량 환갑

오늘 지구 상에는 13 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90 개에 달하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적으로 단합되여 있다.

모든 형제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원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적으로나 행동상으로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은 형제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형제당들의 일치한 합의에 의하여 달성된 이 규범들은 례외없이 모든 형제 당들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된다. 각국 형제당들은 오직 이 규범을 준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매개 형제 당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원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척도로 된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평등하다.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은 없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에는 그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급과 하급, 지배와 복종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계급적 전우들인 형제당 및 형제 국가들은 호상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호상 원조하면서 다같이 번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형제당들 간에 합의된 이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집권적 원칙이란 당 하급 기관이 당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모든 당 단체는 당 중앙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레닌적 당 건설 원칙으로서 오직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며 결코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개별적 당들의 내부적 규범을 형제당들 간에 적용한다면 기성된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당이 기계적 다수를 규합하여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다른 당에 강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조성되며 형제당들 간에 진정한 통일과 단결이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 형제당들은 과거 국제당이 활동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국제당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혁명 대렬도 크지 못 하였고 그의 활동 지역도 넓지 못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 대렬로 보나 투쟁 형태에 있어서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오늘 매개 나라 당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능히 자력으로 수행하리 만큼 세련되고 공고화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illegible] 어느 한 [illegible] 《중앙》에서 유일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없게 되였다. 따라서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형제당들 간에 불평등,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강요하는 대국 배타주의적 경향이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기가 할 일을 자신의 힘으로 다하여야 하며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 자립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혁명은 누가 대신해서 해 줄 수 없으며 매개 나라 혁명은 오직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 그 나라 당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어떤 당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을 망각하고 남의 덕분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자기 나라 혁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은 물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동시에 만일 그 어떤 당이 다른 나라 당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강요할 때에는 역시 매개 나라 혁명은 물론 세계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다른 당들의 자주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다. 그들은 형제당들의 대회를 견실한 당들을 공격하는 무대로 삼고 있다. 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옳지 않으며 또 덮어 놓고 남에게 맹종하는 사람도 옳지 않다. 오늘 어떤 사람은 주견과 확고한 신념이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그 무슨 자주성을 찾아 볼 수 있는가?

매개 나라의 주인은 오직 그 나라 인민이며 그 나라 당인 것 만큼 모든 형제당들은 철저히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남의 자주성을 존중히 하여야 한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에 있어서 어느 당이나 국가가 다른 당,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제당들은 공통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며 견해 상 일치를 보고 통일적인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된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형제당들 간에 련대성이 강화되고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만일 형제당들 간에 의견 상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90 개에 달하는 형제당들이 매개 나라의 혁명을 책임지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당들이 각이한 조건과 각이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또 각이한 대상들과 싸우고 있는 조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와 혁명에 대한 그릇된 립장으로부터도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일단 발생한 의견 상이를 편견이나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리익의 견지에서 해명하며 공개적 론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형제당들 간에 협의된 규범들을 자의로 저바리고 자기들의 의사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 견실한 형제당들에 대하여 《종파주의》요, 《민족주의》요, 《호전 분자》요 하는 감투를 씌우고 있다. 지어 그들은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원칙한 타협과 양보를 다 하면서도 형제 국가들 간에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경제 기술적 협조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 싶이 하고 있으며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일'군들을 빈번히 추방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형제 국가들에 파견한 기술자

들을 철수 함으로써 계급적 전우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가 하면 반동에 대해서는 경제 기술적 원조는 물론 군사적 원조를 줌으로써 형제 국가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도와 주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의 태도와 립장이 아니며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리롭게 할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의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당들은 피부 색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인종도 다르고 나라의 발전 수준도 다르지만 하나의 의지로 단결되여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그것은 공통된 사상과 공통된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느니, 어느한 민족의 《우월성》과 특출한 역할을 내세우면서 계급적 전우들을 멸시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와는 인연이 없는,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배타주의자들의 행동이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다른 당,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타방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호상 간의 정상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한 당의 결정이나 정책은 그 당에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한 당의 결정과 정책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들에 내려 먹이려하고 있다.

매개 당들이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이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형제당들은 오직 호상 믿고 다른 당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형제당들의 로선과 정책, 그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런 고상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를 저바리고 형제당들의 정책을 규정하려 하며 그 실천을 통제하려 한다.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해서 응당한 리해와 지지를 표시할 대신에 우리의 《5 개년 계획을 환상》이라느니, 《기계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남의 실정도 모르고 시비하여 나섰다.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습관이 된 이 자들은 형제당들의 출판물과 방송들이 자기 나라의 결정과 문헌들을 다 보도하는가, 자기 나라 언어와 력사를 학습하는가, 심지어 자기 나라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평등과 호상 존중이란 티끌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대국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협조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의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먼저 혁명이 수행된 나라, 경제가 먼저 발전한 나라는 아직 혁명을 수행하지 못한 당,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하여 응당한 원조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당, 매개 나라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되여야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세계 혁명이 성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형제당들 간의 지지 협조를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일방적인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자들은 원조에 빙자하면서 형제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며 협조하는 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이 호상 원조와 협조는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당, 모든 나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남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장사군과 같이 치부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다.

원조에 대해서 말하기만 좋아하고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형제 국가들과 형제당들은 자기의 활동에서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형제당들 간에 발생된 의견 상이를 극복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국 배타주의적 경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잃고 남에게 맹종 맹동하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주체성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며 창조적 태도이다. 주체적 립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수적 전제로 된다. 매개 당들은 주체를 확립함으로써만 자기 나라 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주체를 잃고 남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한 태도도 아니다.

또한 각국 당들은 독자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하며 그에 대하여 자국 인민 앞에 책임을 진다. 그 누구도 남의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그 어느 당도 다른 당의 통제와 지배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경험에는 그 나라에만 해당되고 다른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형제당들의 경험이라 하여 무조건 다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 것이다.》

만일 그 어떤 당을 막론하고 남의 것을 통채로 삼켜 교조주의를 범할 때에는 현실과 인민 대중으로부터 리탈할 것이며 따라서 자기 나라 혁명은 물론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 지닌 국제적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험은 어느 특정된 당만이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국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를 풍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 레닌과 쓰딸린의 령도 하에 쏘련 공산당이 창조한 경험은 귀중하다. 이와 함께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 식민지 및 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창조된 경험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특히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매개 형제당들과 형제 국가들이 완전히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기 위해 의식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여야 한다.

무엇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박 병

맑스-레닌주의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기나 군사 기술인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인민 대중이 력사의 창조자이라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정의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인민 대중에게서 찾는 것이다.

력사적 사실은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들과 후방의 전체 인민들이 전쟁의 정의성을 자각하고 적을 반대하여 총궐기한다면 무장 장비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물론 적의 무장이 훨씬 우세하다 할찌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정의의 전쟁에서와 같이 인민 대중이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고 병사들이 강제로 전쟁에 끌려 간다면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장비되였다 하더라도 결코 참패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수행에서 무기와 군사 기술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군대의 조직과 전쟁 수행에서의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 기술의 역할을 응당하게 또한 충분히 평가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총포라는 새로운 무기의 발명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군대의 내부 조직 체계가 변화하였으며 각 병종 호상 간의 관계도 역시 변화하였고 전쟁 수행을 유리하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오늘날 핵 무기의 출현이 전쟁 수행 방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데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무기와 군사 기술의 발전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무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리론 즉 《무기 만능론》의 지지자는 결코 아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내성이 강한 인민 대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는 결국에 있어서는 전쟁 마당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 대중들의 정신 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과 원인에 대한 대중의 이러한 자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승리를 보장하여 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에서 인민 대중이 노는 역할을 옳게 평가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맑스주의와 수정주의를 갈라 놓는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인을 인민 대중이라고 인정하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를 인민 대중 우에 올려 놓으면서 인민 대중의 역할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멸시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핵 무기의 출현은 전쟁에 관한 이전의 모든 개념들을 변경시켰고 낡아 버리게 하였다는듯이 지껄이고 있다. 그들은 핵 무기의 출현은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켰다》느니, 《자본주의 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멸망이 온다》느니 하면서 핵 전쟁에 대한 극심한 비관을 퍼뜨리고 있으며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의 구별을 말살해 버리고 전쟁 일반을 반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핵 전쟁이 일어 나기만 하면 사회주의 나라들도 자본주의 나라들도 다 멸망하며 자본가들도 로동자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는 전승자도 패전자도 없게 되며, 정의의 전쟁이요 부정의의 전쟁이요 하고 론할 여지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를 우상화하면서 오직 로케트와 핵 탄두의 위력 여하에 의하여 전쟁의 운명이 결정되는듯이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 대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와 같이 수정주의자들은 핵 무기로 인민 대중을 위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고 반제 투쟁에 인민 대중을 궐기시킬 대신에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하며 미제의 원자 공갈에 굴복케 하는 데로 이끌어 가고 있다.

만일 전쟁이 무섭고 모든 전쟁이 덮어 놓고 다 나쁘다는 사상으로 인민 대중을 교양한다면 수정주의자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핵 전쟁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새 전쟁 도발에로 내모는 결과 밖에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이 핵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도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투항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핵 무기가 미증유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만일 핵 전쟁이 일어 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즉 핵 무기의 시험, 생산, 축적 및 사용의 완전한 금지를 주장하여 왔으며 핵 무기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핵 무기의 파괴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 발전 법칙을 결코 변경시킬 수 없으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으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들 그리고 피압박 민족들이 혁명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핵 무기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 해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제국주의 침략자들 간의 적대적 모순이 완화되거나 그들 간의 투쟁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핵 무기를 가지고 력사 발전을 희롱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립장은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부르죠아적 관점에서 력사 발전을 관찰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력사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력량은 무기가 아니라 인민 대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무시하고 반동적 《무기 만능론》의 립장에 서서 원자탄의 위력이나 측정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원자 공갈 앞에 굴복하게 되며 여하한 혁명도 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의 힘의 강약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 모순의 견지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력사가 실증해 주는 바와 같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선 피착취 대중은 무장에 있어서 지배 계급보다 훨씬 렬세하였으

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언제나 인민 대중이였다. 1930 년대에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된 항일 유격 전쟁이 바로 그랬으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긴 조선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이 바로 그러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투항론자》나 《무기 만능론자》나 《인류 멸망론자》로 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의의 전쟁은 끝까지 지지하고 부정의의 전쟁은 끝까지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핵 무기가 아무리 위력하다 해도 그것도 인민 대중이 만든 것이고 핵 무기가 인민 대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핵 전쟁을 감행한다면 그 때에는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들을 지구 상에서 영원히 소멸해 버리고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청산해 버리고야 말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제국주의 나라들보다 군사 기술 상으로도 훨씬 우월하며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는 전쟁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일체 력량을 동원하는 데 있어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 특히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있으며 자기들의 혁명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혁명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핵 전쟁을 도발한다면 멸망할 것은 인류가 아니라 제국주의자일 따름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공대포 명수 《연구 장관》

근래에 와서 남조선 《제 3 공화국》이라는 데서는 《대통령 취임식》이요, 《국회의 개원》이요, 《내각의 등장》이요, 뭐요 해서 실로 다사 다난했다. 이른바 《대혁신 운동》이니, 《근대화》니 하는 박 정희의 《취임》나발을 받들고 그의 하수인들—《국무 총리》 무슨 《장관》들이 연단에 나타나 박 정희 그 말본을 따서 《물가고와 제반 경제적 난국을 시급히 해결》하겠다,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등 앵무새처럼 기만적 관용어를 엮어 내려 갔다. 그러다가도 기자들이나 또 누구가 《질의 공세》를 들이대면 그 꼴이 천하 가관이라.

《선거 때 공약 실천은?》하고 물으면 《내 과거 일은 모르니 미래 것만 물으라》, 《물가는 어떻게 안정시키겠는가?》하니《연구 중에 있다. …》, 《민생고 해결 방책은?》하고 물으니 《생각해 봐야겠다. 시간적 여유를 달다…》는 등 선거 때의 그처럼 찬란한 《정강》과《공약》들은 까먹은듯 어물어물…. 그래서 벌써 이자들에게 《연구 장관》이라 하고 《국회》를 《연구원》이라 하는 호칭까지 나돌게 되였다.

그러나 놈들이 이러고 있는 새에도 물가는 날개 돋힌듯 오르고 못 살겠다는 원성은 높아만 가니 차라리《연구 장관》 제씨들은 4.19 때 쫓겨난 리 승만이 신세를 면하려거든 자기들의 이런《공약》을 《공대포》라고 아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낫지 않을가?



동무들끼리 말을 주고 받을 때

박 수 영

언어 례절은 웃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무들 사이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동무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은 그 동무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표현되여야 한다.

일터에서 돌아 오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잠간 들어 보자.

《오늘도 150%를 멋지게 해 제꼈다네. 자, 우리 도서실에 가서 책이나 좀 읽어 보세.》

《그러세. 오늘은 초름식 방법에 대한 걸 기어코 결판 내야겠어. 좀 도와 주게나.》

얼마나 다정한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의 토막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깨끗한 감정, 서로 존경하는 고상한 우정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면 딱딱하다거니, 친숙하지 못 하다고 말들 한다.

《어이 이치 또 만났구나, 만날 김에 구락부에나 가자야.》

《자식, 삼춘 보구 버르장머리 없이…넌 오늘 몇 프로나 했?》

이런 식으로 말해야만 동무들끼리 친해지고 허물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우정과 동지적 관계에 대한 잘못된 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면 동무들 사이에 언어 례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언제나 써야 한다. 우리 말에는 이런 말투로써 《우리 집에 좀 놀러 오게.》《조립 직장에 가세.》와 같은 말들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라.》《조립 직장에 가자》와 같은 말들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놀러 와 (오너라)》, 《오늘 뭘 했?(했니?)》과 같은 말투를 동무들 사이에 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런 말에는 동무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자기 동무에게 말을 할 때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기에 맞는 말을 골라 써야 한다.

즉 웃사람 앞에서 자기 동무와 말할 경우에는 웃사람에게 표시하는 례의의 하나로써 자기 동무에게 《오늘 회상기 모임을 했소.》와 같은 말투를 쓰는 것이 좋다. 사회 생활에 참가하는 우리는 다만 개별적 동무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도 응당 생각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도 응당 고려하여야 한다.

례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말할 때에는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라도 그 동무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존경어를 써야 한다. 그 동무가 지도하는 아래'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생활에 들어 와서, 특히 단 둘이 만나 이야기할 때에는 《오겠소.》와 같은 말투를 쓰지 말고 더욱 친근한 감을 주는 《이리 좀 오게.》와 같은 말투를 쓰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동무들 사이에 속된 말을 버리고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말을 찾아 써야 한다. 앞에서 례를 든 바와 같이《어이》, 《이치》, 《자식》들과 같은 말은 다 속된 말이다.

이 밖에도 《모가지》, 《귀때기》, 《배때기》, 《주둥이》, 《아가리》, 《다리갱이》, 《놈》, 《새끼》 등과 같은 비속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쓰면 인품이 떨어지고 도리여 수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동무들 속에서 락인을 받는다.

우리는 이런 속된 말을 버리는 동시에 자기 동무에 대하여 《너》, 《아이》라고 하는 버릇도 없애야 한다.

《너 오늘 어데 갔댔니?》 대신에 《원식이, 오늘 어데 갔댔나?》하면 얼마나 좋은가.

일부 청년들은 자기의 가까운 두 동무 (이들이 생판 모르는 사이일 때)를 소개하는 경우에 《이 아인 내 동무야. 자, 인사하지.》하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있다. 이 때에 《이 동무는 내 친구인데 서로 알구 지내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청년들은 동무들 사이에 지켜야 할 이상과 같은 언어 례절을 잘 알고 그에 적당한 말을 골라 씀으로써 우리 시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며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앞장에 서야 한다.

인정과 원칙

최 윤 종

옛날부터 겉은 부드럽고 속은 꿋꿋한 (외유내강—外柔內剛)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정도 있고 원칙도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수양을 쌓은 사람이라야 이런 훌륭한 덕성을 겸비하게 된다. 아직 수양이 부족할 때에는 흔히 인정은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인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들 속에는 인정은 개인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원칙은 공'적 사업과만 관련된 문제로 보면서 인정과 원칙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편향도 있다.

그러므로 인정과 원칙 문제를 옳게 리해하는 것은 청년들의 자체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인간성과 당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인간성과 당성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이며 이 량자 간에는 밀접한 호상 관계가 있다.

공산주의자는 인간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생각하며 인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최고 리상으로 삼는다. 그런 까닭에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상 락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투쟁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성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다. 그는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남을 동정하는 인정이 가장 두터운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한량 없이 깊으며 인민들과 동지들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위험도 돌보지 않으며 지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가장 전형적인 실례들을 1930 년대 항일 투사들의 생활에서 수 없이 찾아 볼 수 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뜨거운 심장들》에는 식량 공작을 나갔다가 자기 동지가 적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당했을 때 그를 업은 우에다 두 개의 쌀 주머니까지 걸고 비'발치는 적탄과 눈보라를 뚫으며 걷고 있던 한 빨찌산 대원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위험에 대한 생각보다도 오히려 부상 당한 전우의 고통에 대하여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감명 깊은 이야기가 씌여져 있다.

이 한 가지 이야기에서만도 우리는 그들의 한량 없이 깊고 고결한 인정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 대가정 속에서 사는 우리 시대, 우리 제도 하에서 사람들의 우애와 인정은 더욱 활짝 꽃피여 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깊은 강물에 뛰여 든 공화국 영웅 리 병모 동무와 김 정순 동무의 숭고한 자기 희생성, 한 환자의 생명과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뼈를 서슴없이 떼여 바친 수 많은 의료 일'군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치는가!

《…아직도 여러 명의 학생들을 구출하여야 하

겠는데 벌써 나는 힘이 진했고 얼음'장에 찢긴 가슴과 어깨와 등은 찬물에 얼어 들어 운신도 못 하리 만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드라도 어떻게 로동당 시대의 청년인 내가 그 귀중한 어린 생명들을 물 속에 둔 채 물러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화국 영웅 김 정순 동무의 소박한 말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승냥이처럼 대하는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한 높은 사랑과 깊은 인정 세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인정은 사람 일반에 대한 그 어떤 막연한 사랑이 아니며 초계급적인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성실한 근로 인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 혁명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두터운 인정은 인민의 원쑤, 온갖 종류의 착취자와 억압자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과 결부되여 있다. 그들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사소한 동정도, 추호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인민들과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는 공산주의자들의 품성의 중요한 두 측면을 이룬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과 당성은 깊은 련관과 통일 속에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혁명적 동지들과 인민들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무원칙한 인정에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그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결합되여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상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이 존경하며 더 많이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과업은 곧 믿음의 표시》로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들의 부족점과 결함에 대하여 융화 묵과하며 감싸 주는 행위를 배격한다. 왜냐 하면 동지들의 부족점과 결함을 묵과하는 것은 곧 동지를 결함에서 건져 낼 대신 그를 더욱 결함의 진흙탕 속에 밀어 넣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행위는 동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 주려는 태도가 아니며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인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대해서나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 계급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을 지키는 원칙 우에 선 인정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단결도, 동지적 방조도, 사랑도 모두 이런 원칙 우에 선 원칙적 단결이며 원칙적인 방조, 원칙적인 사랑인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업에서의 엄격한 원칙성—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품성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업을 혁명의 관점에서, 당과 인민의 리익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교시하셨다.

× ×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성은 공산주의 승리에 관한 확신과 신념에 토대하고 있으며 그 사상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가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수정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과 교활한 수단을 다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똑똑히 알지 못 하고서는 공산주의자의 원칙성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원칙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힘과 인내성이 없이는 무원칙한 인정에 흐르려는 자신을 다잡지 못 한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한 토리의 털실》을 실례로 들 수 있다.

항일 빨찌산의 녀성대원 안 정숙 동지는 전투가 끝난 후 원쑤들의 군수 창고에서 무기를 반출할 때 공만한 털실 한 토리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령하 40도의 혹한과 허리를 치는 눈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녀대원인 그로서 자신의 심한 랭병을 생각하고 점령된 창고에서 공만한 털실을 한 뭉치쯤 들고

나오는 일은 십분 리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충실한 공산주의자인 안 정숙 동지는 곧 그 일로 하여 숨이 막히도록 당'적 량심의 가책을 받는다.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전체 대원들 속에 이것이 조장된다면 우리 부대 내 규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가서는 그들이 전투 마당에서 혁명에 소요되는 물건보다 자기 개인에게 소요되는 물건을 먼저 찾기에 눈을 밝힌다면 우리 부대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정숙 동지는 밤'잠도 이루지 못 했다.

개인의 리해 관계를 사회와 조직의 리해 관계에 복종시키며 로동 계급의 해방, 조국과 인민과 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복종시키는 고상한 원칙성은 이렇게 자기의 약점과 투쟁하여 이겨 내는 데서 견지된다.

여기에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30 년대의 지하 공청원이던 채 도처 동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여났으나 일찍부터 맑스-레닌주의 진리를 깨닫고 무산 계급 혁명의 길에 나섰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 하고 원수의 편에 선 그의 가족들은 장차 미칠 가환이 두려워 채 도처 동지를 묶어 원수의 편에 넘기려 하였다. 이 위급한 순간에 그는 결코 인정에만 호를 수 없었다. 그는 분연히 자기를 묶으려는 형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대며 《혁명의 길을 막아 서는 사람은 아무도 용서할 수 없소.》하고 말했다. 그런 때 그에게는 혈육의 정보다 혁명적 원칙이 한 없이 더 중대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주저 없이 가족들과 절별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원칙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원칙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남들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동무들의 잘못을 보았다면 원칙을 놓고 충고와 비판을 주어야 한다.

또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립장을 지켜야 한다. 남이 제기하는 일에 무비판적으로 따라 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반드시 원칙의 자막대기에 비추어 받아들이거나 물리쳐야 한다. 자주적이며 자립적 립장에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은 상부에 아첨하기를 좋아하며 상부에는 결함이 있어도 정당한 비판을 하려 하지 않거나 남의 아첨과 아부에 쉽게 넘어 가며 또한 자기를 무원칙하게 춰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맑스-레닌주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했다면 언제 어디서나 또한 누구에게 대해서도 떳떳이 할 말을 머뭇거리거나 보신주의적 립장에서 어물어물 살아 가지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원칙성의 중요한 특징은 말과 행동, 공산주의적 신념과 높은 도덕적 행동의 통일에 있다. 말로써 원칙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써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야 진정으로 원칙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칙에만 충실하려고 하며 원칙만을 따지면 분위기가 부드럽지 못 하여 생활과 사업에 유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는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 상 문제를 편협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쓸 데 없는 걱정이다. 원칙은 다양한 방법으로 능숙하게 관철해 나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청년 공작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청년들 속에서 원칙적 비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신 구절 하나에서만도 우리는 이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수상 동지는 그 때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비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각이한 성격들을 잘 고려해서 하여야 한다…말이 적고 꿍한 동무는 한 번 비판을 받으면 오래 가슴 속에 재겨 두는 성미가 있는데 일단 뉘우치고 고친다 하는 때에는 꾸준하게 나가는 기질이 있다. 그러니 이런 동무에게는 비판을 자주 줄 것이 아니라 요긴한 때에 한 번씩 비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반면에 성격이 급한 동무들에게는 자주 비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동무들은 접수력도 빠르지만 과오도 잘 범하며 뒤가 없다.》

원칙은 바로 이렇게 얼마든지 능숙하게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꿋꿋한 진정한 공산주의자, 인정도 원칙도 겸비한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완강하고 꾸준한 사상, 도덕 수양과 동시에 실천 활동, 특히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집단적 활동 과정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학습과 의지

·백 선욱

강의한 의지—이것은 청년들이 자기의 숭고한 리상과 원대한 포부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의지는 우리의 생활과 투쟁에서 힘을 배가해 주며 불굴의 혁명 정신을 북돋아 준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를 배양하고 단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특히 각 방면에 걸쳐 부단히 배우며 수양하는 청년 시절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그것은 일단 계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드라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 정신을 말한다. 따라서 강의한 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하드라도 자기의 목적을 기어이 해결하고야 만다.

불멸의 업적과 위훈으로 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친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 창의 고안의 명수들은 누구나 다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들이였다.

청년들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강의한 의지를 발휘하여야 한다. 의지는 청년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함께 학습에서도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원래 학습이란 인류가 축적한 모든 선진적인 지식들을 최단 기간에 체득하고 그것을 혁명 실천에 구현하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 기력과 인내성, 열정과 완강성이 남김 없이 발현되여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꾸준하게 노력하고 혁명적 정력을 발휘함으로써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학습에서 의지를 발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단 학습 목표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를 끝까지 실행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에서 정확한 계획과 함께 강의한 의지를 겸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강의한 의지는 학습 과정에서 부닥치는 모든 곤난과 애로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난해한 문제들도 자신이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며 학습과 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 선렬들의 학습 경험에서 뚜렷이 찾아 볼 수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첩첩 준령을 넘나들면서도 반드시 학습 계획을 집행하였으며 전투 훈련 과정에서도 언제나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교재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휴식 시간에는 눈 우에도 글을 쓰며 배웠다. 이것은 항일 빨찌산들이 학습에서도 얼마나 강의한 의지를 발휘하였는가를 충분히

보여 준다.

《마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속담이 있는 바와 같이 굳센 의지를 발휘하여 계획한 것은 철저하게 수행하는 데 습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소한 난관 앞에서도 물러서는 나약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실학 사상의 집대성자인 정 다산 선생은 학습에서 의지를 발양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매해 학습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는 것을 완전히 습관화하였다고 썼다.

의지는 우리 청년들이 배우려는 문제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의지가 강한 청년들은 동일한 생활 조건에서도 남보다 빠르게 많은 것을 배우며 훌륭한 기사, 기수, 전문가로 자라 난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이 실증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과 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얻어 내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강한 의지이다.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학습도 잘 하려면 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시간을 더욱 많이 쟁취하여야 한다. 만일 의지가 약하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시간을 적극 탐구하여 학습을 정상화하는 혁명가다운 학습 기풍을 세울 수 없다.

의지의 힘은 평남 문덕군 어룡 협동 농장 김 금옥 동무의 기술 학습 경험이 여실히 실증해 준다.

인민 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 한 그는 가정 부인으로서 온 종일 잠실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돌아 오면 가정'일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오직 학습에서의 비결은 완강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부엌에서 일할 때나 빨래와 바느질을 하면서도 학습하였고 지어는 학습 내용을 《자장가》로까지 만들어 가며 공부하여 기술 학습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영광스럽게도 《민청 창립 10 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수여 받게 되였다.

경험은 우리가 완강한 의지를 발휘한다면 모든 토막 시간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학습을 훌륭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뻐스 정류소나 기타 대중 집합 장소에서, 그리고 휴식의 여가에도 독서와 학습 토론에 열중하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의지가 강하고 따라서 학습 열의가 높은 청년들만이 진행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다.

끝으로 학습 과정에 수시로 봉착하게 되는 난해한 문제들을 심원한 탐구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강의한 의지가 선차적으로 요구된다.

학습에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면 조금만 힘든 문제가 제기되여도 즉시 권태증을 느끼거나 그 본질을 옳게 체득하지 못 한 채 날림식으로 넘기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학습에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립장을 버리고 남에게 의탁만 하려는 극히 그릇된 경향을 발로시킬 수 있다.

우리는 물론 강의나 강연, 강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습에서 기본은 자습이며 독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자습과 학습에서 창발적인 사고력 등 두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한 의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의지의 힘이 낳는 기적적 성과는 우리의 생활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남 온천군 대평 협동 농장 김 명산 동무가 초중을 졸업하고 보람찬 일터에서 3 년 동안에 훌륭한 농산 기수로 자라 날 수 있은 것도 완강한 의지를 발휘한 데 있다.

그는 학습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 시간 이상의 시간을 쟁취하여 그 날 계획은 그 날에 반드시 실행하는 것을 습관하였다. 무쇠 공이도 3 년 갈면 바늘이 된다는 말과 같이 이악하고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기수의 자격을 받게 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한 의지는 청년들이 학습과 과학 탐구의 대로에서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굴함 없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해 주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맑스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에는 탄탄한 대로가 없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험난한 소로를 기여 올라 가는 자만이 과학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

청년들은 학습에서 강의한 의지를 발양하기 위하여 우선 학습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의무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옳게 가질 때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우리의 혁명 선배들이 학습에서도 강의한 의지를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은 비결은 학습에 대한 그들의 혁명적 태도와 립장에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학습이 곧 자신의 혁명 실천의 불가분적 구성 부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타락 장송도 근본은 종자인 것과 같이 처음에는 비록 아는 것이 많지 못하다 해도 정확한 계획을 작성하고 강의한 의지를 발휘하여 학습한다면 필연코 과학 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에서 의지를 배양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옳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과정에 수시로 부닥치게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 해도 반드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적당한 분량을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부단히 길러야 한다.

인류의 력사 발전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천재들과 학자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학습과 탐구 사업을 생활의 필수적 조건으로 정상화하고 모르는 문제들은 반드시 자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의지를 굳세게 다지였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며 사상가인 맑스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형용할 수 없는 경제적 난관과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중병으로 하여 더욱 곤난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자본론》 집필과 과학 탐구 사업을 정력적으로 계속하였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과 생활에서 단련된 그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완강한 의지와 노력만이 낳을 수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학습을 자기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1 차적 조건으로 되게 하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의지를 더욱 단련시켜 자기에게 부과된 혁명 과업 수행에서 모두가 훌륭한 능수가 되여야 한다.

독서를 하고서 그것의 실용을 모른다면 그것은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며 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 연 암)



천재 - 그는 근면이다

－신원군 월당리 조 제근 동무에 대한 이야기－

첫 걸음

1958년 11월 축사를 돌아 보던 조 제근 동무는 큰 돼지 두 놈이 숨을 씨근거리는 것을 보았다. 제근 동무는 가슴이 섬찍했다. 그는 축산 기술원 양성소를 갓 나와 경험도, 기술도 부족하였다. 청진기를 대고 아무리 짚어 보아야 무슨 탈인지 알 수 없었다.

《페염에 설사 같은데…》

그는 돼지에게 캄파 주사를 놔주고 설사약을 먹이였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또 열 세 마리가, 또 다음 날에는 더 많은 돼지들이 걷잡을 새 없이 드러누웠다. 결국 수의들이 달려 와서야 돼지의 병이 류행성 감모인 것이 확진되였다.

제근 동무는 식사도 물리고 1 주일 간이나 앓는 돼지 곁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버지 권고 대로 상급 학교에나 갔더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그는 이렇게 후회도 해 보았다.

…3 년 전, 초중 졸업을 앞두고 제근 동무는 농촌에 진출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버지는 그 일을 기특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25 년 간이나 지주놈의 머슴살이로 늙으며 남처럼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여 제근 동무에게 상급 학교에 가 더 배우라고 말하였다.

제근 동무는 농촌에서 일하면서도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그는 큰 꿈을 안고 농촌으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결국 2~3 년 세월을 헛되이 보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겨우 기술원 양성소나 나온 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런 결과는 어찌 되였는가! 이번에만도 나는 기술이 없는 탓에 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 그렇다. 나는 이제라도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온 밤을 모대기였다.

제근 동무는 이 뜻 밖의 사건을 통해 커다란 충격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는 자기의 앞날을 희망차게 그리여 보았다.

첫 2 년은 원예 기수, 다음은 축산 기수, 다음은 농산 기수, 그 다음은 기사, 그 다음은 학자—이렇게 그려 나가던 그는 그 때에 가서 이런 지식 있는 청년들에 의해 몰라 보게 달라질 고향 마을을, 우리 조국의 면모를 눈앞에 그려 보기도 하였다. 가슴이 흐뭇해지였다.

그는 우선 자기의 전망 계획에 맞게 년간, 월간, 주간 학습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을 남보다 앞장 서서 많이 해야 할 그로서는 계획한 대로 학습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일이나 회의를 하고 나서 밀리고 나면 학습은 계획의 절반도 못 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쁜 때라도 시간을 얻어 내려고 애썼다.

제근 동무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 나 일 나가기 전에 1 시간 이상을 얻어 내였고 점심참에도 꼭 30 분 이상 학습 시간을 짜내였다. 밤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3 시간 학습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 나가기 전 1 시간 동안은 맑은 정신으로 암기할 문제나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였다. 점심 시간에는 신문의 사론설을 읽기도 하고 술어 해설이나 공식 외우기를 하였다. 저녁에는 3 시간 이상 문제 풀이와 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학습을 하였다.

제근 동무에게는 수십 권의 작은 수첩과 1천여 매에 가까운 카트가 있다. 산이나 들에서 일하는 일이 많은 그로서 언제나 두터운 책이나 학습장을 끼고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날씨와 일하는 장소에 맞게 아침에 그 날 할 학습 내용을 발취한 수첩이나 카트만을 가지고 나간다. 심지어 날이 궂거나 비가 오는 날까지도 그는 유지로 싼 주머니 안에 크기가 우표만하게 접은 카트나 수첩을 넣고야 일하러 나가군 하였다. 제근 동무는 이렇게 이악하게 학습하였다.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아래와 같은 사연은 제근 동무가 얼마나 완강하고 근면하게 학습하였는가를 잘 말해 준다.

《육종 및 채종학》 교과서와 2천 리 《려행》

지금 제근 동무의 서가에는 260 권의 여러 가지 도서가 있다. 이것은 오랜 도서 애호가의 장서에 비하면 그리 많은 축은 아니다. 그러나 손때가 묻고 다스러져서 덧붙이고 새로 손질한 그 한 권 한 권의 책에는 제근 동무의 학습 열의를 말해 주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제근 동무가 원예 기수 검정 시험을 준비할 때였다. 그런데 그에게 꼭 필요한 《육종 및 채종학》 교과서가 없었다.

평양, 해주, 사리원, 심지어 청진에까지 편지를 띄워 많은 책을 구하군 하였으나 그 책만은 구하지 못 하였다. 여기저기 물색하여 남포나 북청에 가면 그 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내였다.

남포까지는 300 리, 북청까지는 천여 리가 넘는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니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느 휴식일 아침 제근 동무는 신원을 떠나 남포로 향하였다. 남포에 도착한 제근 동무는 두루 돌아 다녔으나 그 책을 구하지 못 하였다. 며칠 전에 다 팔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헛탕을 치고 나니 그는 다리가 허전하였다.

(어떻게 할가? 아예 내친 걸음에 천 리라고 어디 북청까지라도 가 보자!)

그 달음에 그는 북청행 렬차에 올랐다. 그것은 실로 천여 리,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먼 거리였다.

북청 서점에 들어 서서 책 진렬대 우를 눈으로 살살이 훑고 있던 제근 동무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환성을 올렸다.

《저 책을 삽시다.》

…지금 제근 동무의 서가에 있는 《육종 및 채종학》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손님의 길을 안내하고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수박 겉 핥기식의 학습은 의의가 없다!》

고난에 찬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대원들의 학습을 돌보시며 하신 수상 동지의 이 말씀은 일하며 배우는 제근 동무의 학습 생활에서 지켜 오는 철칙이였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건숭건숭 스쳐 지나 가는 일이 없었다.

시험이나 쳐서 무슨 자격이나 얻으려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실효 있게 리용해야 한다고 깊이 확신하고 있는 그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를 완전히 리해할 때까지 끝까지 해명해 내고야 말았다.

어느 날 제근 동무는 20 리 떨어진 목장으로 볼 일이 있어 가고 있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 날 아침에 그는 정치 경제학 과목 중에서 《가치 법칙》의 정의를 그 수첩에 깨알 같이 박아 써 넣었던 것이다.

(가치 법칙이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았으나 명확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골몰하여 10여 리 갔을 때였다.

《동무, 월당리를 어느 길로 가오?》

수첩에서 눈을 떼였을 때 그의 앞에는 정무원 차림의 나이 지숙한 한 길'손이 서 있었다.

《네, 그게 우리 마을인데 손님은 어데서 오십니까…》

《저 평양에서 오는데…아직도 거기가 머오?》

(옳지 이 분에게 물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제근 동무는

《마침 잘 되였습니다. 제가 길을 가리켜 드리지요.》

하고 그의 길 안내가 되였다.

오던 길을 되돌아 선 제근 동무는 인차 그 길'손에게 질문을 들이대였다.

《그런데 저 손님, 한 가지 물어도 일 없겠습니까!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 생산 사회에서 왜 가치 법칙이 생산의 자연 발생적 조절자로 되나요?》

《그것은 말이요…》 하고 그 길'손은 차근차

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마을까지 오는 동안 《가치 법칙》은 완전히 해명되였다.

이렇게 제근 동무에게는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가 《교원》이거나 학습 토론자였다.

투쟁으로 밝힌 밤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태산도 물러 선다는 말이 있다. 제근 동무의 학습 과정에 막아 서는 곤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오직 혁명 과업인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



어느 날 제근 동무는 회의에서 늦게 돌아 왔다. 졸음이 천근 무게로 눈'두덩을 내려 눌렀으나 그 대로 책상에 마주 앉았다.

(앞으로 뒤'산 우에 양수기를 놓고 저 룡호 마을 앞 밭을 개간해야지. 그러면 일제 때 논이라고는 일곱 되지기 밖에 없었다던 마을이 온통 논으로 될테지. 또 그 때면 축사도 더 늘어 나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로 온 마을이 뒤덮이겠지…우리 청년들이 빨리 배워야 해…)

이 때 누군가 다급하게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제근 동무! 장성 마을에서 소가 병이 났소.》

장성은 10여 리 떨어진 마을이다.

《그래, 곧 갈테니 먼저 뛰여 가 보라구…》

부리나케 치료 도구를 챙겨 가지고 문 밖에 나선 그는 곧 후회하였다. 방금까지 오던 비는 좀 멈춤하였으나 그 대신 밖은 코앞도 가리지 못 하게 캄캄하였다.

《너무 덤볐군, 같이 갈 걸!》

제근 동무는 전쟁 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얼마 갔을 때였다. 앗차 하는 순간 그는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머리를 찧는 타격에 눈에서 불꽃이 튕기고 아찔하더니 정신이 흐리졌다. 제근 동무는 치료 가방을 들어 쥔 채 쓰러져 있었다…

얼마 후 선득선득한 비'방울이 얼굴을 적셔 주어 그는 정신을 차렸다.

제근 동무는 몸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길우로 기여 올라 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소 병을 치료하고 집에 돌아 오니 닭이 세 홰째나 울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눕지 않았다. 책상에 다가 앉은 제근 동무는 계획된 대로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6월 전원 회의 문헌을 발취하고 그리고 또 두 문제의 대수 방정식을 다 풀고야 말았다. 그 때는 푸름푸름 창문이 밝아 오고 있었다.

× ×

제근 동무는 학습을 부지런히 한 결과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그는 최근 4 년 동안에 《김 일성 선집》(1~6), 《레닌 전집》(1~38)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발취하였으며 정치 서적, 문학 서적, 농업 기술 서적 등 80여 권의 책을 무려 5만 페지나 읽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천과 떨어진 것이 아니였다. 그는 축사에서 일하며 가축의 병 치료와 사료 조제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였다. 그는 생산 로동 과정에 얻어 낸 귀중한 연구 자료로 《새끼돼지 육성률 제고》란 연구 론문을 썼다. 그것은 전국 농업 부문 과학 기술 연구 발표회에 제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든 돼지를 붙들고 쩔쩔 매던 때로부터 5 년…투쟁과 들끓는 열정으로 충만된 이 5 년 동안에 제근 동무는 원예 기수, 축산 기수의 자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 학사 론문 《사료의 화학화》를 7 개년 계획 기간에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본사 기자

청년기의 육체 단련

한 인 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에 참가하는 매개 성원들이 사상 리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수 있으며 학습도 잘 하고 생활도 락천적으로 꾸릴 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몸은 개인의 몸인 동시에 당의 몸이다. 사람들의 유기체가 건강하자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 기관들이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의 혁명 력량이 강화되자면 혁명에 참가하는 매개 성원들이 사상적으로 견전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전체 인민이 건전한 사상과 함께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였을 때 우리 조국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혁명 위업은 보다 촉진되고 외래 침략자들의 무력 침공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국가의 중견인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하여야만 우리 조국은 튼튼하여질 것이며 그 누구도 수모할 수 없는 당당한 독립 국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몸이 건강해야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겠다는 고상한 사상과 정신이 있고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기술을 가졌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 하고서는 당과 혁명에 더욱 충실히 복무할 수 없으며 구경은 쓸모 없는 사람으로 되여 버리고 말 것이다.

특히 조국 건설의 기둥이 되여야 할 우리 청년들의 심신이 건전해야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촉진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로동과 학습에서 절실히 필요한 강한 의지와 정력도 몸이 건강할 때만이 나올 수 있다. 건강은 강의한 의지와 정력의 원천이다.

또한 우리가 학습을 잘 하자고 해도 몸이 건강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맑은 정신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또 짧은 시간을 학습해도 능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신체가 허약하거나 건강하지 못 하면 항상 정신이 흐리터분하고 학습할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학습을 해도 전혀 능률이 오르지 않는 법이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위대한 수령 레닌은 정신 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체육 운동을 강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이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도 언제나 각종 체육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울리야노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요. 매일 의무적으로 체조를 하시오. 모든 운동을 수십 번씩 (에누리 없이) 꾸준히 하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라고 썼다.

이와 같이 지'적 능력의 발전과 정신 로동 행정에 건강이 주는 영향은 실로 큰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건강은 국방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경험은 현대전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장병들을 요구하며, 고상한 투쟁 정신과 도덕적 품

성과 우수한 군사 정치적 준비와 능숙한 군사 기술을 소유하는 동시에 풍부한 육체적 인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의 육체 단련,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육체를 튼튼히 단련하는 것은 조국 보위를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은 사상 수양과 함께 육체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 선배들은 건강이 혁명 전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심하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단련하는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30 년대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언제나 사상 수양과 육체 단련에 전심 전력하였다. 그들은 전투의 여가에는 물론 행군 과정에서도 육체 단련을 위한 각종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지어 적의 포위 속에 들었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에 대한 확고 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전투 준비를 위하여 육체를 단련하였다. 그러기에 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느 때나를 막론하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이한 정황을 자유 자재로 변경시킬 수 있는 민첩한 기동성과 대담성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불요불굴의 투지를 소유한 혁명 투사들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체를 튼튼히 단련하고 있다.

경험은 체육이 근로자들을 튼튼하고 건전한 심신의 소유자로 단련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육체 단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매일 조기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동을 생활화해야 하며 하루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로동과 체육, 휴식, 수면, 영양 섭취 등 제반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특히 하루 생활에서 1 시간 이상씩 다양한 체육 활동을 어김 없이 꼭꼭 실시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육체 단련에 매우 유익하다. 하루 1 시간 체육 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근로 청년들의 로동 조건과 직종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민 보건 체조, 작업 전 또는 작업 간에 진행하는 생산 체조, 인민 체력 검정 종목과 롱구, 배구, 탁구, 정구를 비롯한 각종 구기 종목들 그리고 집단 달리기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집단 달리기는 작업 전 또는 작업 후에 직장 단위로(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이하다)일정한 거리를 걷기와 교체하면서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육체 단련과 의지 단련을 위하여 태양 광선, 물, 공기 등 자연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자연력은 사람들의 신체를 단련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강인한 의지를 배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이다. 자연력을 리용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광욕, 랭수 마찰, 랭수욕, 적수 그리고 공기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력의 제반 요소들을 리용하여 신체를 단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육체 활동과 결부되여야 단련의 효과가 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점차성의 원칙에 엄격히 준하여 진행하되 년간 또는 다년간 꾸준히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강인한 의지가 배양될 수 있으며 또 외부 환경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건강할 수 있다.

또한 강한 의지와 내한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스키, 스케트, 설상 행군과 같은 동기 체육을 광범히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육체 단련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기계 체조와 예술 체조 그리고 집단 체조를 광범히 실시하는 것이다. 기계 체조와 예술 체조는 약동하는 청

년들의 정서와 흥미에 적합한 운동 종목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육체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불요불굴의 투지, 인내력 그리고 고상한 예술적 정서를 배양함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청소년들 속에서 기계 체조와 예술 체조를 광범히 보급 장려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전체 청년들은 광범한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 철봉, 평행봉 등 기계 체조 기구를 생산 현장 가까이 설치하고 일상적으로 그를 리용함으로써 기계 체조를 대중화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등산, 행군 및 야영과 같은 군중 체육 행사를 광범히 조직 진행하는 것도 청년들의 의지를 단련하고 육체를 발달시키는 데서 아주 좋다. 집단적인 등산, 행군 및 야영은 또한 청년들을 각이한 외부 조건을 타개하는 곤난 극복의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배양시킨다.

모든 청년들은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신체를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운동 수단들은 그들의 심신 단련과 함께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담보의 하나로 된다.

왜냐 하면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신체가 약하고 외계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기 때문이다.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랜 정신적 활동으로 하여 신체의 피로를 빨리 느끼며 지어 주의력과 사고력까지도 감퇴되여 사업에서 적극적인 창발성이 억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신 로동과 다양한 체육 활동과의 적절한 배합은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여야 한다.

청년들이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인한 의지로 인내성 있게, 완강하게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수십년 간씩 랭수 마찰을 할 수 없으며 언제나 규칙적인 체육과 일과를 준수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체육을 하는 것이 곧 당'적 과업이라는 자각을 누구나가 다 느끼고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청년들은 자기의 사상 수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체를 튼튼히 단련시키는 것이 곧 혁명을 위한 것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체육 사업을 더욱 군중화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

청년생활 소사전

찬물에 세수를 하면 왜 좋은가?

우리들의 몸 체온 조절 기능에서는 피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피부가 늘어 나면 몸 안의 열이 밖으로 쉽게 나가며 피부가 줄어 들면 몸 안의 열을 나가지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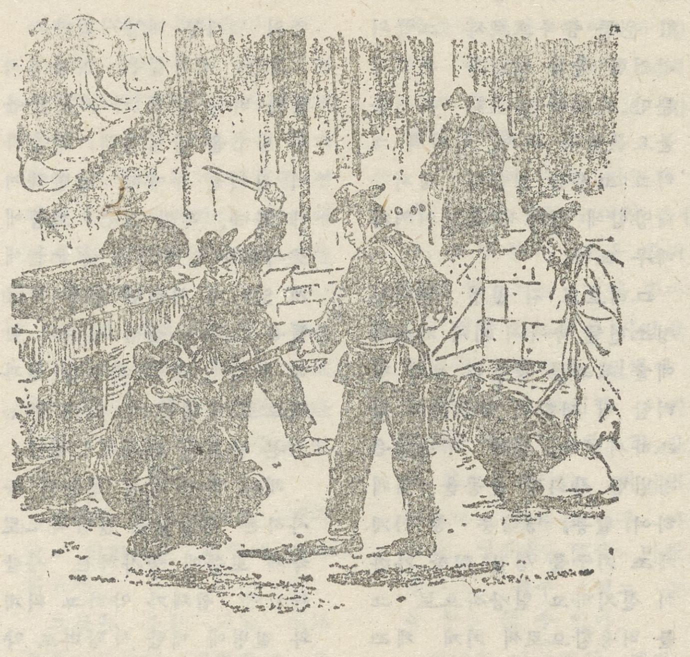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민활하게 체온 조절을 잘 하자면 피부와 이와 같은 활동이 재빨리 되여야 한다.

찬물에 세수를 하면 피부의 이와 같은 기능 즉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일을 민활하게 하며 또 폭 넓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날씨가 차지거나 더워지는 외부 온도 변화에 섭사리 적응하며(특히 추운 경우에)감기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한다. 즉 찬물에 세수를 하면 피부와 신경을 단련시켜 외부 조건에 대한 저항력을 높혀 줌으로써 몸을 보다 튼튼히 하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찬물과 더운 물을 엇바꾸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르죠아 개혁 운동의 선구자 김 옥균

오 길 보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 개혁 운동의 선구자 김 옥균은 1851년 2월 23일(음력 1월 23일) 충청 남도 공주에서 김 병태의 장남으로 탄생하였다.

귀동자로 태여났데다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구슬 같음을 자랑하여 그의 부친은 아들의 이름을 옥균 (玉均)이라고 지었다 한다. 김 옥균의 부친은 학식이 반반한 량반으로서 훈학을 업으로 자제들의 교육 사업에 힘썼으며 모친 송씨 역시 선량하고 인정이 많아 린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조선의 어머니였다.

이러한 량친의 슬하에서 자란 김 옥균은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주 또한 비상하여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마을 어른들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김 옥균이 서당에서 배움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겨우 여섯이 되던 해였는데 하루는 그의 부친이 아들을 불러 놓고 시험 삼아 창공에 높이 솟은 달을 가리키며 글을 지어 보라고 하였다. 김 옥균은 즉석에서 《월수소 조천하 (月雖小 照天下)》 즉 《달은 비록 적으나 온 천하를 비친다.》고 달의 전모를 간결하게 묘사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무한히 경탄케 하였다. 그 해에 김 옥균은 종숙 (從叔) 인 김 병기의 양자로 되여 서울에 올라 가 살게 되였다.

이 때부터 그는 서울 양부의 집에서 동무들과 함께 글'공부를 하게 되였는데 류달리 뛰여난 총명과 지력은 날에 날마다 눈에 띄우게 늘어 갔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류창하고 다감한 시를 지어 높은 찬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화가 또한 유명하였다. 힘 있고 균형 잡힌 글'발은 어느 모로 보나 명필이라고 절찬을 받았으며 그가 그린 그림은 생동한 것이 특징이였다.

그처럼 재능 있는 김 옥균은 그 후 강릉 부사가 된 양부의 지도 하에 근 10여 년 간 강릉에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실학에 관한 저서에 흥미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들이 주장한 대로 백성이 나라의 가장 귀중한 밑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의 양부 김 병기도 강릉 부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을 존중하여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 올 때 강릉 인민들은 그를 위하여 애민비를 세웠고 오래도록 그의 높은 뜻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영향 하에 김 옥균은 인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로 자라 났으며 국사에 대하여 근심하고 조국의 일목 일초를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로 자라 났다. 김 옥균이 양부를 따라 다시 상경하였을 때는 비록 열 여섯의 소년이기는 하였으나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결하여 서울 시내의 이름 있는 학자들과 벗하게 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엄중한 사변들이 벌어졌었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 해적선 《샤만호》 의 침입과 불란서 함대의 무력 침공 사건이였다. 강도적인 구미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인 투쟁의 영향 하에 열렬한 애국자로 장성하던 김 옥균은 급속히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김 옥균의 선진 사상 형성에서 결정적 계기로 된것은 개화 사상가 류 대치, 오 경석 등의 지도를 받게 된 때부터이다. 류 대치, 오 경석은 중인 (중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시 평민 출신 지식 인테리 계층을 가리킨 말이다)으로서 개화 사상의 창시자들이였다. 이들은 외국에서 수입된 도서들을 통하여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 면모를 일목 료연하게 내다 보고 있었다. 그들은 외국이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 나날이 발전하는 데 우리 나라만이 락후한 나라로 남아 있음을 한탄하면서 실학의 개혁 사상을 토대로 근대적인 부르죠아 개혁 사상을 주장한 개화 사상의 창시자들이였다.

이들은 자신의 힘에 의하여 부르죠아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량반 출신 자제들 중에서 다재 다능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사람을 동지로서 선발하기에 진력하였다.

1860 년대부터 진행된 이러한 노력의 결과 류 대치, 오 경석은 1871년 경에 그들의 믿음직한 후보자로 김 옥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게 적극적인 지도를 주었었다.

류 대치, 오 경석은 그에게 연암 박 지원과 다산 정 약용 등이 주장한 실학의 개혁적인 사상을 알리여 주면서 이 사상을 근대적인 부르죠아 개혁 사상으로 시대에 알맞게 창조하여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개혁을 수행하도록 지도했으며 세계 각국에서의 부르죠아 혁명의 경험과 근대적인 나라들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알리여 주었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뛰여난 재주와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의 소유자인 김 옥균은 개화 사상가 류 대치, 오 경석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급속히 부르죠아 개혁 운동자로 육성되였다.

이리하여 개화 사상은 김 옥균에게 계승되여 실천적 활동과 결부된 부르죠아 혁명의 사상적 무기로 되였다.

김 옥균은 류 대치, 오 경석의 지도 하에 1870 년대 초에 부르죠아 개혁 운동의 정치 세력 집단인 개화파를 형성하고 그의 지도자로 되였다.

그 후 김 옥균, 류 대치, 오 경석 등은 나라의 개화 발전에 뜻을 가진 청년들을 개화파에 인입하여 부르죠아 혁명 세력을 확장하였다. 개화파에는 많은 선진적인 인물들이 망라되였으며 그 세력은 광범한 계층 속에 뿌리 박고 있었다.

량반 자제들로서 개화파에 인입된 사람들은 김 옥균의 지도 하에 그와 함께 국왕으로 하여금 개화파를 지지하여 나서도록 개화의 필요성을 력설하였으며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에는 선진한 나라들의 부르죠아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 나라에 섭취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가지고 왔다. 이 때 그들은 정부에서 파견한 사신이라기보다 개화파 지도자 김 옥균이 파견한 사신처럼 큰 역할을 담당하여 주었다. 특히 리 동인과 같은 중(僧)은 김 옥균의 선진 사상의 강력한 영향으로 개화파 성원이 된 이후 김 옥균의 부르죠아 개혁 운동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였다.

김 옥균은 부르죠아 개혁 운동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 일본 정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관직에 있던 김 옥균은 나라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는 일본에 갈 수 없었으며 제기한 대로 승인될 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승려 리 동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그 정세를 탐지케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려비는 김 옥균이 자기의 토지를 팔아 장만하여 주었었다.

리 동인은 중의 신분을 리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1879년에 비밀리에 일본에 건너 갔으며 근 1 년 간 체류하면서 김 옥균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궁중에 있던 환관(宦官) 시녀(侍女)들로 개화파 성원이 된 사람들은 수구파인 민가 일파의 동향을 그에게 제공하여 주었으며 상인 개화파들은 김 옥균의 부르죠아 개혁 운동을 재정적으로 방조하여 주었고 군대 내에도 개화파의 성원이 있어 김 옥균의 개혁 운동에 필요한 신식 군대 준비를 하였다.

김 옥균의 지도 하에 개화파들은 무엇을 지향하였던가?

대체로 세 개 측면에서 개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 나라를 급속한 시일 내에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였다.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가 일파는 부패 무능한 통치 계급으로서 외래 침략 세력에 아부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들이 근대적인 독립 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외세에 의존하는 민가 일파 때문에 발전에 장애를 받고 있었음으로 개화파들은 우선 민가 일파를 타도하고 일체 외국 침략 세력을 구축하

며 근대적인 당당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지향한 독립 국가란 낡은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여 무한히 발전하는 새 나라 즉 부르죠아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였다.

둘째로는 근대적인 무력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우리 나라의 국방력이 쇠약한 것을 얕보고 외래 침략 세력이 침입하므로 국방력을 강화하여 자위의 태세를 튼튼히 갖추어 외래 자본주의 침략자들이 침입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것이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제기한 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국방력이 매우 허약하였기 때문이였다. 군사들은 신체가 허약한 선비들과 같아 적과 싸울만한 용기가 없었고 무기고에 보관된 총의 총신 안에는 종이'장 같은 녹이 쓸어 다시금 제조해야 할 형편이였고 좀 쓸만한 총은 탐관오리들의 사냥총으로 리용되는 형편이였다. 이런 것을 개탄하여 근대적인 군대와 신식 무기로 장비하여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실로 응대하였으며 정당하였다.

세째로는 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맹아가 발생하여 왔으나 봉건 통치배들의 약점과 외래 침략자들의 경제적 침략으로 원만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과 철을 채굴하고 제련하여 대소 규모의 근대적 공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전변시키려는 선진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즉 이 세상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의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이 세상의 좋은 형편을 보고 싶다.

(리 수 광)

이러한 선진적 사상가 김 옥균은 1884년 12월 4일 홍 영식이 총판이 되여 락성한 우정국의 개청 축하연을 기회로 수구파를 타도하는 정변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이 사건이 김 옥균에 의하여 준비되고 단행된 첫 부르죠아 개혁 운동인 갑신 정변인 것이다.

민가 일파의 수구파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김 옥균은 부르죠아 정부를 구성하고 새로 작성된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정강에는 개화파의 지향이 상세히 반영되여 있었다.

김 옥균의 지도 하에 단행된 1884년 갑신 정변을 계기로 우리 나라는 근대적 부르죠아 국가로 당당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민가 일파와 조선 침략을 목적한 일본 침략자들의 박해 책동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류혈적 투쟁으로 성취한 갑신 정변은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정변 후 개화파에 대한 수구파들의 탄압은 형언할 수 없이 혹심하였다. 그들은 갑신 정변에 참가했던 애국자들을 체포 구금했으며 사형에 처하여 서울 시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김 옥균은 하는 수 없이 일부 개화파 성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여 근 10여 년 간의 세월을 보내였다.

일본 침략자들은 이 때 김 옥균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리용하여 그를 자기들의 조선 침략에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선진적 사상가인 김 옥균은 일본 침략자들의 이러한 간계를 알아 차리고 그들의 침략 행위를 폭로 규탄하고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김 옥균의 애국 사상과 지조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일본 침략자들은 그를 남해 고도인 소립원 제도 (小笠原 諸島)와 추운 북해도 지방 등에 추방까지 하였다. 김 옥균은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그의 애국 정열은 더욱 불타 올랐다.

김 옥균은 기회가 있는 대로 조선에 돌아 와 부르죠아 혁명을 다시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 남아 있던 개화파 성원들과 련계를 가졌고 그들을 고무하였으며 국왕을 비롯한 수구파들의 죄악상을 백일하에 폭로하였다.

1894년 일본에서 상해로 갈 때 그의 포부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 혁명의 수행은 물론 조선, 중국, 일본에 대한 구미 침략자들의 침략을 이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힘으로 막아 보자는 실로 웅대한 것이였었다.

이처럼 조선이 낳은 열렬한 애국자이며 부르죠아 개혁 운동의 선구자인 김 옥균은 자기의 전 생애를 나라와 인민의 장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바치다가 1894년 43 세를 일기로 빛나는 생애를 마치였다.



실 화

관씨간은 왜 총을 잡았는가

—한 남부 월남 처녀의 이야기—

침침한 고문실에선 피비린내가 확 풍긴다.

불 맞은 메'돼지처럼 눈을 부릅뜬 사나이가 숨을 씨근거리고 있다. 그가 성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징 박은 구두에 콩크리트 바닥이 긁히며 소름 끼치는 쇠'소리를 낸다.

사나이는 광지성 경찰국 예심 처장 아미란 놈으로 이름 난 살인귀이다. 그 놈은 이따금씩 고문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쏘아 보며 분을 삭이지 못 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때마다 그 놈의 손에 들리운 장검이 서리찬 빛을 뿌린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않고 있다. 속옷이 형체 없이 찢어져 그 속에 피투성이 된 섬약한 알몸이 들어나 보인다. 머리는 홀랑 깎이웠다.

《저 계집에게 물을 끼얹어!》

그 놈은 자기 옆에 붙어 선 부하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찬물을 이리저리 끼얹자 쓰러진 사람의 팔다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더니 기적적인 힘으로 팔을 짚고 일어나 머리를 추켜 들었다. 그러자 피로 얼룩진 얼굴에서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을 뿌린다.

예심 처장 놈이 또 달려 들었다.

《그래, 어떠냐? 내 칼'등 찜질 맛이, 아직도 말을 안 할 작정이냐, 음!…》

처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놈은 진저리를 떨었다.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거 봐, 그 년이 입을 벌리도록 또 때려!》

야무진 채찍 소리가 고문실 천정을 찌렁찌렁 울렸다. 처녀는 또 정신을 잃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처녀 관씨간은 정신을 차렸다. 감방이였다. 세 번째로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놈들은 그를 감방 안에 처넣었던 것이다.

관씨간은 자그마한 철창문으로 흘러 드는 달'빛을 바라 보고 있었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밤'새 한 마리가 울고 지나 간다. 그것은 관씨간의 고향 마을에서도 많이 들던 새 소리였다.

…관씨간은 제농현 상사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야자수가 푸른 강물 우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사랑한다. 어느 해인지, 오랜 세월 월남 인민의 등'가죽을 벗겨 먹던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물러 가자 마을 사람들은 기름진 제 땅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였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기쁨은 미제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말았다.

하루는 관씨간네 마을 앞으로 미군 자동차들이 달려 들었다. 그들 속에는 불란서놈들에게 붙어 먹던 반역자 느고메이란 놈도 보였다. 그 놈이 장승 같은 미군 앞에 허리를 갑싹갑싹하며 알랑 바치는 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이렇게 말했다.

《저 원쑤 같은 놈, 느고메이가 온 걸 보니 또 재미 없는 일이 생기겠군!》

마을 사람들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군용 지도를 꺼내 놓고 쑥덕거리던 놈들은 한참만에 어디론지 사라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일하러 다니던 기름진 들에는 《군용지》라는 패말이 박히고 철조망이 늘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땅을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패뙤 군경놈들이 달려 들어 마을 사람들을

쫓아 냈다.

《저 놈들은 불란서놈들 대신 기여 들어 와 우리를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 났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은 총칼을 휘둘러 그들을 잡아 갔다.

그 때 잡혀 간 판씨간의 아버지는 영영 돌아 오지 못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온 동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땅을 떼웠고 생때 같은 사람들을 잃었다. 이들에게는 이제 앉아서 노예가 되여 죽느냐, 아니면 놈들과 싸워 이겨서 잃었던 땅을 찾고 잃어진 사람들의 복수를 하느냐 하는 길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판씨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제와 괴뢰놈들을 때려 없고 해방을 가져올 투쟁에 나섰다.

마을의 청년들과 장정들은 낫, 창 등 닥치는 대로 연장을 쥐고 산으로 갔다. 판씨간은 마을에 남아서 그들의 뒤를 돌봐 주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야밤에 괴뢰 특무 두 놈과 경찰 두 놈이 그의 집에 뛰여 들어 판씨간을 체포해 갔다.

《빨갱이가 어디 있어?》

놈들은 갖은 고문을 다했다. 그러나 판씨간은 입을 열지 않았다. 위협과 고문으로도 안 되자 놈들은 음흉한 간계를 꾸몄다.

하루는 잔이라고 하는 앞잡이놈이 판씨간을 유혹하려고 하였다.

《말만 한 마디 하라구, 그러면 꽃 같은 청춘을 보람 있게 살테니…》

그 놈은 가져 온 꾸러미를 풀어 비단 목도리와 신발 그리고 맛 있는 음식을 판씨간에게 내밀며 너스레를 떨었다.

판씨간은 참을 수 없었다.

《이 더러운 앞잡이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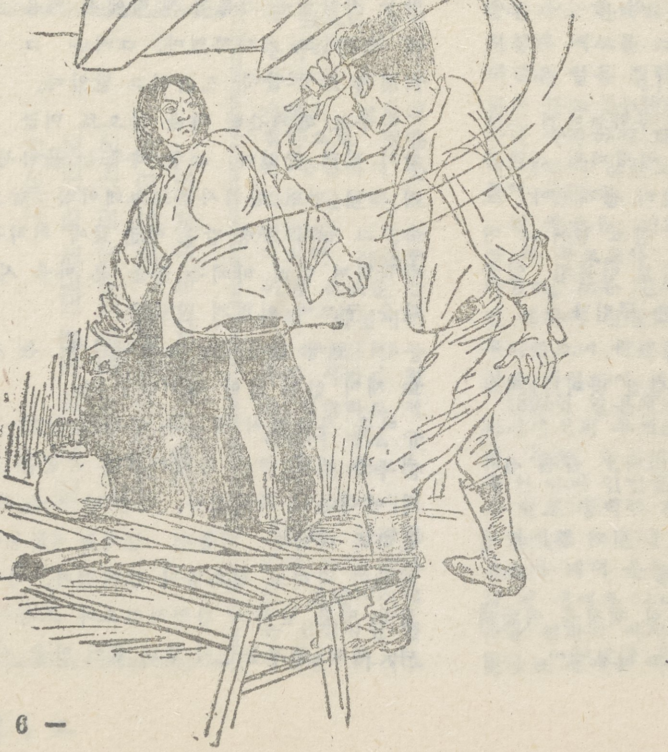
여지껏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벼락 같이 달려 들어 그 놈의 상판을 불이 일게 후려치고 침을 탁 뱉았다.

성이 머리 끝까지 치민 놈들은 판씨간을 또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놈들은 위협도, 공갈도, 회유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래 할 수 없게 된 놈들은 다섯 달만에 판씨간을 석방하였다.

판씨간은 고문과 감방 생활로 몸이 몹시 쇠약해졌으나 실망하지 않았다.

(조국을 위하여 살려거든 끝까지 보람 있게 살며 죽어도 혁명을 위해 싸우다 죽어야 한다. 놈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조국과 인민 앞에 큰 죄악이다!)



판씨간은 자기가 다진 결의 대로 굴하지 않고 여전히 싸웠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또 놈들에게 체포되였던 것이다…

《네 놈들은 우리 인민의 거세찬 투쟁의 불'길을 막지 못 한다. 미제를 몰아 내고 완전한 해방을 가져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번에도 놈들은 판씨간에게서 산에 간 사람들의 어떠한 비밀도 알아 내지 못 했다. 판씨간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 놈들은 할 수 없어 판씨간을 500일만에 석방하였다.

그의 몸은 상처로 하여 성한 곳이 없었다. 판씨간은 출옥 후 애국적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료하였다. 판씨간의 굴함 없는 투쟁은 인민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산에 간 사람들은 적을 치고 무기를 로획하여 더욱더 큰 무장 대오로 되였다. 판씨간도 새로운 힘을 얻어 더 잘 싸웠다. 그는 세 번째 또 체포되였다. 놈들은 판씨간을 구덩이 속에 넣고 하반신까지 흙으로 묻으며 그에게 위협했다.

《그래 빨갱이 무장대가 있는 데를 안 댈테냐, 입을 열지 않으면 생매장하고 말테다!》

생매장을 당한다 해도 판씨간이 어떻게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선 동지들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목적을 이루지 못 한 놈들은 그를 판지시 감옥에 넣었다.

또다시 감옥 생활이 시작되였다. 그러나 판씨간은 어떠한 환경이나 장소에서도 싸움을 중단할 수 없었다.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그는 애국자들과 손잡고 수차 옥중 투쟁을 하였다.

1960년 6월 판씨간은 감금되였던 애국자들과 함께 팡지성 감로주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 호송되였다.

산간 오지에 있는 이 인간 도살장은 200여명의 괴뢰 경비병들이 수비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판씨간은 애국자들을 묶어 세워 끊임 없이 싸웠다. 그들은 괴뢰군 병사들에게 인민을 반대하는 데 가담하지 말고 총을 들고 남부 월남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를 몰아 내는 싸움에 합류하라고 꾸준히 설복하였다. 수 많은 병사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무기를 들고 인민 무장대로 들어 갔다.

이것을 냄새 맡은 집단 수용소의 사형리들은 판씨간을 은밀히 없애 버릴 흉책을 꾸몄다. 그러나 놈들은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먹물을 풀어 놓은듯 어두운 밤 그는 애국자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집단 수용소 구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는 밤'길을 가고 또 갔다. 날 밝을 녘에야 그는 유격 근거지에 도착하였다.

(폭풍은 남부 월남을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을 누가 막을 것이냐! 이 땅에 기여 든 미제를 마지막 한 놈까지 소탕하고 사랑하는 고향 마을을, 그리고 온 조국 강토를 기어코 해방하리라!)

× ×

오늘 판씨간은 용감한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의 녀대원이 되였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있다.

서 응걸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

어느 한 시인에게 《향토가》 하나를 작사하라는 군수의 《긴급 분부》가 내렸다.

《우리에게는 지금 좋은 노래가 필요하단 말이야! 농민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원성을 가라앉힐 그런 노래 말이야.》

군수는 농민들이 살'길 없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기들의 악정의 결과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애향 정신》이 없는 탓이라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자들의 뜬 마음을 돌려 세워야겠단 말이야. 걸작을 좀 쓰게! <고교와 오구니노 난 바쿠미(일본 군가)식으로 말이야… 그전 내가 일본군에 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야…알았는가?》 하고 떠들어 댔다.

시인은 아닌 밤에 홍두깨 내밀듯 다곶는 통에 선대답을 해 놓고 나서 근심이 태산 같았다. 만약 쓰지 않으면 《불온》딱지가 붙어 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몇 시간을 두고 고심하던 끝에 가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푸른 산 맑은 물이 감도는 들에……

첫 구를 이렇게 시작하여 후렴 붙은 삼 절로 된 《군민의 노래》란 것을 지어 놓았다. 《군수》는 곱씹어 읽고 나서 《재주'군이거든, 좋아…》 하고 제멋에 능청스런 웃음까지 터뜨리면서 《군민들이 불러야 할 것이니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합평회》란 것을 조작하였다.

그리 하여 《면장》, 《분회장》을 비롯하여 자질구레한 《장》들, 그리고 농민들까지 강제 출두시켰다.

《거 참 좋소. 정신 혁명의 기틀이요…》

한 《면장》이 입을 벌리자 《군수》 낯빛을 살피던 아첨'군 《장》들이 《좋소.》하고 외마디로 《동의》했다. 그런데 끌려 온 중년 농민 한 사람이 《여보슈!》하고 일어 섰다.

《나 보기엔 그 노래란 거짓말만 늘어 놓았소…푸른 산 맑은 물이 어쩌고 했는데 우리 고장에 푸른 산이 어디 있는고. 무슨 미군 군사 기지다 뭐다 해서 모두 깎아 버려 빨간 산을 만들었고… 고향 산천은 미군의 구두발'길에 짓밟히고…시내'물은 피로 물 들고 있잖는고, 거짓말도 유만 분수지…아따 그 시 쓴 량반도 봉이 김 선달 찜쪄 먹겠군. 차라리 <빨간 산 흙탕물에…>하는 게 낫지 않는고…》

그 농민의 말에 뒤'이어 장내에는 격노한 농민들의 함성이 터지고 당황한 군수는 책상 밑으로 기여 들고 시인은 원고를 찢고 도망치는 일대 소동이 벌어지였다. 이것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 아닌가!



싸우는 캄보쟈

김 영

최근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횡포한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캄보쟈는 어떤 나라인가?

캄보쟈는 동남 아세아의 인도지나 반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으로는 타이만에 면하고 동서북은 남부 월남, 타이, 라오스와 접하고 있다.

캄보쟈는 메콩강의 충적 평야에 놓여 있는데 서부와 북부는 해발 1천 메터 내외의 산지이고 동부는 안남 산맥 서사면의 평탄한 고원으로 되고 있다.

기후는 년중 평균 30도를 헤아리는 열대성 기후이며 강우량은 년 평균 2천 미리 메터이다.

나라의 면적은 18만 1천 평방 키로 메터이며 인구는 574만 9천 명(1962년 3월 현재)으로, 수도는 프놈펜이다. (수도 주민 50만 3천 명)

주민의 75%는 캄보쟈족이며 그 외에 약 30만 명의 월남족, 약 14만 명의 중국인, 라오족, 타이족 기타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약 80%는 똥레호 부근의 평지대와 메콩강 안의 평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캄보쟈는 기원 초시기에 벌써 독립 국가로서 자기 력사를 시작하였는데 11~12 세기에 있어서는 동남 아세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의 하나였다.

그러나 19 세기 중엽인 1863년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된 후 90 년 간이나 침략자들의 기반 밑에서 신음하였으며 가혹하게 략탈 당하였다.

캄보쟈 인민은 외래 침략자들의 횡포한 탄압과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장기간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아세아 제패의 야망을 품고 기여 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자기 조국에서 몰아 내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2 차 대전 후에는 미제의 지원 밑에 이 나라에서 자기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또다시 침입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불란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캄보쟈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특히 2 차 대전 후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반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환경 속에서 급격히 앙양되였다.

불란서 침략자들은 캄보쟈 인민의 이 완강한 투쟁 앞에서 부득이 1949년에 《불란서 련방》 내에서의 캄보쟈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캄보쟈 인민은 1953년 11월 9일 완전 독립을 쟁취하고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조인된 후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현재 캄보쟈 의회는 량원제로서 왕실 의회(상원)와 국민 의회로 구성되여 있다. 국민 의회 임기는 4 년이며 의원 수는 61 명이고 왕실 의회 의원 수는 24 명이다.

정당으로서는 노로돔 시하누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 집권당인 인민 사회주의 동맹 외에 군소 정당으로 자유당, 민주당 등이 있다. 인민 사회주의 동맹은 주로 왕족과 대상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독립을 달성한 후 캄보쟈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식민주의의 악독한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캄보쟈는 이미 2 개년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60년부터는 제 1 차 5 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 섰다.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은 농업으로서 주민의 90% (5 헥타 이하의 토지밖에 못 가진 농민이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약 150만 헥타에 달하는데 그 중 벼 재배 면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 호뽀, 옥수수, 후추, 고무 등이며 어업(똥레호에서의 담수 어업이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매년 10만 톤 이상에 달한다.), 림업 및 축산업도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59~1960년에 벼는 130만 톤, 고무는 1959년에 3만 4천 톤을 생산하였다. 1959년에 대유각 가축은 136만 두였는데 그 중 물소가 33만 6천 두에 달하였다. 년 평균 어획고는 13~15만 톤이였다.

공업에서는 1960년 현재 2,059 개의 반 수공업적인 기업소들이 있었는데 주로 방직, 견방직 및 정미 공장들이다. 주민의 약 절반은 문맹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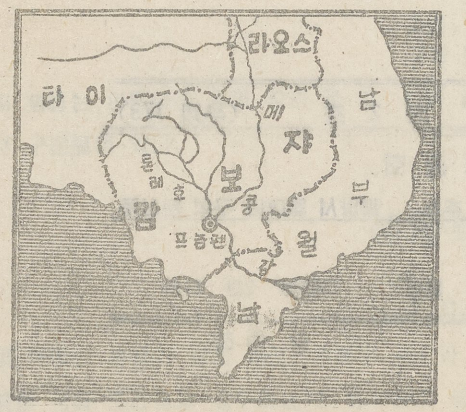
1960년~1964년 제 1 차 5 개년 계획은 나라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지는 바 농업, 림업, 어업, 및 목축업과 가공 공업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 문화를 현저히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여 농업 분야에서는 관개 체계의 확립과 관개 면적의 확장을 위한 《물 정책》(1958년 착수)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 벼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고무 생산량도 1960년보다 8%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나라 고무 생산의 약 50%를 장악하였던 불란서인 경영의 고무 재배원을 전부 몰수한 이후에 이룩되였다.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4년에 농업에서는 쌀 18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사탕 14만 1천 톤, 면화 6천 톤을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방적, 제지, 합판 및 세멘트 공장들이 조업하고 있으며 다이야 공장, 제당 공장과 기타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쌀, 고무, 옥수수, 후추, 물'고기, 목재 등인데 특히 후추 생산량은 년산 10만 톤을 넘어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공업 시설, 화학 제품, 의약품 등이다.

캄보쟈는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반둥의 원칙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 애호적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캄보쟈 인민은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조항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타이로부터 비률빈에 이르는 련쇄된 침략 체계를 형성하려는 미제는 캄보쟈를 중립의 길에서 떼내여 쎄아토에 끌어 넣으며 이 나라를 아세아 침략의 군사 교두보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 왔다. 미제는 벌써 1954년에 쎄아토를 조직한 후 이 나라를 일방적으로 그의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원조》의 미끼를 뒤흔들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상 관계의 확대를 방해하며 각종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캄보쟈에 대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그러나 캄보쟈 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 책동에 대하여 이미 단호한 대책을 취하고 미 제국주의의 종복인 타이, 남부 월남 정부와 일체 정치적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캄보쟈 정부는 자국 인민들의 진정한 념원과는 배치되는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모쓰크바 조약을 규탄하면서 《허위적인 군사 조약》에 조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이런 데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은 현 캄보쟈를 전복하며 이 나라를 예속화하려고 타이, 남부 월남의 주구들과 캄보쟈의 반역 분자들을 사촉하여 갖은 악랄

한 책동을 계속하여 왔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특히 최근 시기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그의 침략 지반이 뒤흔들리는 것과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 설치된 캄보쟈 반역 분자들의 비밀 방송국인 소위 《자유 캄보쟈인 방송》에 자금을 대주면서 이 방송국으로 하여금 현 캄보쟈 정권을 반대하는 악의에 찬 방송을 불어 대게 했다. 또한 미제는 《자유 크메르 운동》이란 캄보쟈의 민족 반역자 단체를 적극 지지 고무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종 파괴 활동을 감행하게 하였으며 지어 시하누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구데타 음모까지 꾸미게 하였다. (《자유 크메르 운동》이란 미제가 캄보쟈를 강점하고 있을 때 수상으로 있다가 1952년에 직위 불만으로 도망친 손 느곡탄과 1955년에 내각 부수상으로 있다가 미제에게 매수되여 캄보쟈의 중립 정책을 반대하며 캄보쟈가 쎄아토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내각 전복 음모까지 꾸미다 도망친 산 사리를 두목으로 한 미제가 조작한 반란 단체이다.)

그러나 미제는 캄보쟈 인민을 기만할 수도 없었으며 굴복시키지도 못 하였다.

최근 캄보쟈 국민 의회는 미제가 주는 《원조》를 거절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미국의 경제, 문화 기관들과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의 갖은 회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캄보쟈 주재 미영 대사관들의 모든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관 전체 일'군들을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자들의 캄보쟈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캄보쟈 왕국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조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미제의 내정 간섭과 침략 행위를 반대하는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캄보쟈 왕국 정부와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단호한 조치는 캄보쟈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

오늘 반제 반식민주의 공동 투쟁에서 맺어진 조선 인민과 캄보쟈 인민 간의 친선 협조 관계는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캄보쟈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962년 8월에 량국 간에는 총 령사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및 경제 대표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캄보쟈 왕국 정부도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행사에 자기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축하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에는 프놈펜에서 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과 캄보쟈 왕국 대표단 간에 호혜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또한 캄보쟈의 체육 대표단과 체육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친선적인 경기도 진행하였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캄보쟈 인민의 투쟁에서 재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있다.

잡지명 청년생활 제 2 호 (루계 173)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쇄 1964년 2월 16일 발행 1964년 2월 21일

7-430027 값 45 전

책 소 개

당의 후비대

국판 285 페지
민청 출판사 발행

이 책에는 지난 18 년간 민주 청년 동맹이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위대한 혁명 투쟁과 위대한 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 올린 자랑찬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청의 영광에 찬 행로와 자기들의 투쟁과 성장에 대하여 회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 청년 동맹의 창건과 발전, 그의 모든 업적들은 1930 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여 년간, 조선 청년 운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자본론 이야기》

4×6판 254 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이 책은 자본주의 발생 발전 및 멸망의 필연성, 맑스의 경제 리론의 초석인 잉여 가치 학설의 기본 내용, 로 자간의 계급적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피성 등 맑스의 불후의 로작인 《자본론》의 기본 사상이 알기 쉽게 서술되여 있다. 이 책은 《자본론》과 《잉여 가치 학설사》 및 레닌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자본론》의 과학적 및 혁명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결부하여 수정주의자들의 반 맑스주의적 《리론》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생활과 언어

국판 296 페지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이 책에는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 입 말과 글 말들, 바로 말하기와 바로 쓰기, 언어와 례절 등 4편으로 구분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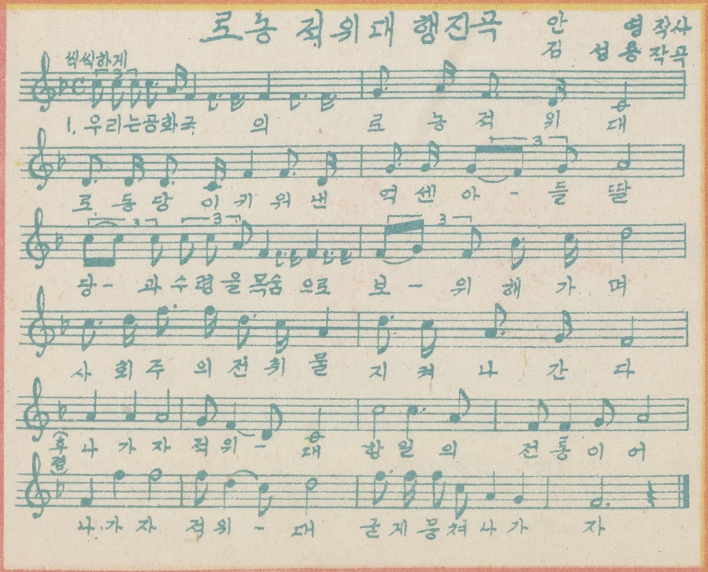
생물학의 첫 걸음

국판 250 페지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발행

이 책에는 생물의 발생 발전, 생물의 구조와 형태, 동식물의 생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물체들은 어떠한 생활 조건들을 요구하는가, 동식물의 생활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등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은 농산,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게된다.

(정기 간행물
제 13653호)





2. 우리는 영예로운 조국 보위자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 따라
언제나 백절불굴 불사조 같이
사회주의 전취물 지켜 나가자
(후렴)

3. 정치 상학 군사 훈련 모두다 으뜸
로동당에 몸바친 인민의 충복
언제나 원쑤에겐 경각성 높이
사회주의 전취물 지켜 나가자
(후렴)